

전시
자료집
변태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무지개색 자보틀, 사진전, 이벤트
10.4 ~ 10.8 학생문화관 1층 로비

영화제

날짜	시간	제목	장르	감독	출연
10.4 (토요일)	14:00	변태소년들의 이야기 (The Boy Who Swam)	단편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10.4 (토요일)	16:00	변태소년들의 이야기 (The Boy Who Swam)	단편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10.4 (토요일)	18:00	변태소년들의 이야기 (The Boy Who Swam)	단편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10.4 (토요일)	20:00	변태소년들의 이야기 (The Boy Who Swam)	단편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10.4 ~ 10.8 학생문화관 3층 시네마테크

워크숍

“모두 죽을 준비하셨나요?”
관련한 유언장 쓰기 워크숍
10.6(수) 6:30 모스코관 360호



제 8회 레즈비언 문화제

2010.10.4 ~ 10.8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1층 로비

이화 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년하늘을날다

02) 3277-4712 <http://blog.naver.com/ewhabyunnal>
ewhabyunnal@naver.com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219호

2 올바른 용어 쓰기

4 변남 언학

6 변태소년들은 어떤 시간을 살고 있을까

8 영화로 보는 레즈비언의 삶

시작

11 지은이의 일기

12 청소년의 '나없는 내인생'

15 스무살, 포토에세이

17 신일 이야기 :: 아무 하레

연던 아마 포밍

젊을 때

24 씬씬

26 대답 :: 인생곡선

33 만화

34 커밍아웃 편지

36 맥스와 함께하는 취업파악

성숙할 때

40 그냥 평범한 이야기

42 변남일보

44 수술하려면 남자남편을?

나이들 때

48 만화

50 두 엄마 그리고 가족

53 인터뷰 :: 50대 레즈비언 '도쌤' 님

57 엄마의 편지

끝

59 떠남면서 남기는 글, 회고록

61 2062년 종말론

65 후기

67 감사인사

제8회 레즈비언 문화제
〈변태소년 시간을 살다〉

동성애 homosexuality 동성애자 gay

동성애는 감정적, 심리적, 성적, 사회적으로 동성에게 이끌리는 것을 뜻합니다. 동성애자는 이렇게 동성에게 이끌림을 느끼는 사람 중에, 그러한 자신의 지향을 받아들여 스스로 동성애자로서 이름붙인 사람입니다.

레즈비언 lesbian

게이 gay라는 단어는 원래 남녀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대부분 남성 동성애자에 국한되어 사용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여성 동성애자는 레즈비언이라고 부릅니다. 여성에 대한 사랑을 노래했던, 고대 그리스의 4대 시인 중의 한명인 여류시인 사포가 살았던 섬 레스보스에서 기원한 말입니다.

동성애자는 동성에게만, 이성애자는 이성에게만 이끌릴 수 있다면 양성애자는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양성애자 bi-sexual

퀘스처닝 questioning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해 질문을 하는 상태 혹은 사람 (퀘스처너리 questionnaire)이며 자신을 어떤 범주에 넣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존재입니다.

성소수자, LGBT, 퀴어queer, 이반二般,異般

이성애적 규범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소수'란 단순히 수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표준화'된 주류와 권력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L레즈비언 G게이 B바이섹슈얼 T트랜스젠더(성전환자) Q퀘스처닝을 합쳐 성소수자, 이반, 퀴어queer라고 부릅니다.

이화 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이화여대 내 자치단위로서, 학내에서부터 학외까지 레즈비언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신장하고 궁극적으로는 편견과 차별에서 자유롭게 할 여러가지 활동을 펼쳐나가고자합니다.
함께 할 산입활동가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2010.3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결성을 위한 준비

2002.3 학내 정식 자치단위 인준

- 2002.3 3.8여성학날 기념 학내 매거진에 실림
- 2002.3 3.8여성학날 기념 부지개 시위 주최 (전경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ww, 커리커리 공동주최)
- 2002.3 매거진에 문화제 참여 - 페르소나 기획, 자료집 글 기고 (이화여성학회 주최)
- 2002.4 이화 레즈비언 첼리 기획
- 2002.4 연세대 동성애자모임 협동계단 7주년 기념식 참여
- 2002.5 에이데이 기획단 4/월 기획 (문학에도 등 공동기획)
- 2002.5 이화 대동계 첼리 주별 개최
- 2002.6 연세 문화제 '부지개 2002' 후원, 참가
- 2002.6-9 처부 간사 초창 오온 세이나 진행
- 2002.7 전국 동성애자 연합 결성
- 2002.8 제 5회 청소년 인권학교 주최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 연구서, 협동계의 공동 개최)
- 2002.9 대학 동성애자 모임 연합 첼리 기획 (서울대 동성애자 모임 바를 005 공동기획)
- 2002.11 중앙대 이반모임 '페르소나 기획' 영화제 참여
- 2002.12 '참치는 영화제' 개최 (커리커리 공동기획)
- 2003.3 세이나 동성애자 맞아 모임 - 페르소나 기획, 자료집
- 2003.3 자치단위 홍보 - 영상물 제작, 설명과 자료집 제작, 배포
- 2003.3 반성론에 네트워크 연세인 - 자료집, 별지 배포
- 2003.5 3.8여성학날 부지개 시위 참가 (다들오로 나온 연대) 주최
- 2003.4 연세대 협동계단 8주년 기념식 참여
- 2003.4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개정 권고서 발행지 발표
- 2003.3 '연세문화축제 2003 주최위원회' 결성
- 2003.1 동성애자 자살심 갖기 세이나 진행 (커리커리 간사 박봉)

2003.5 첫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연 어찌다 여성애자가 되었나> 개최

- 2003.5 문화제 기간 중 자료집 30만 배부
- 2003.6 제 6회 청소년 인권학교주최 (공동주최)
- 2003.9 이화여자대학교가 연남의 동성애자(여성성소수자) 자살심 갖기 프로그램)을 위한 캠페인 사용신청을 거부, 이화여자대학교를 '성지향에 대한 교육기관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2003.12 연남 레스 위키
- 2004.2 연남 레스 자료집 준비
- 2004.4 연남 재결성
- 2004.4 동학문화제에 연남 자치 공간 사용권 확보를 위한 첼리
- 2004.5 반성론에 네트워크 재결성
- 2004.8 토론회<레즈비언, 그녀들의 다름과 같은 목소리들> 주최 (레즈비언인권운동공동주최)
- 2004.8 레즈비언 인권운동가 MT
- 2004.9 '또 다른 세상' 기획 페르소나 글 기고



이화 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이화여대 내 자치단위로서, 학내에서부터 학외까지 레즈비언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신장하고 궁극적으로는 편견과 차별에서 자유롭게
할 여러가지 활동을 펼쳐나가고자합니다.
함께 할 신입활동가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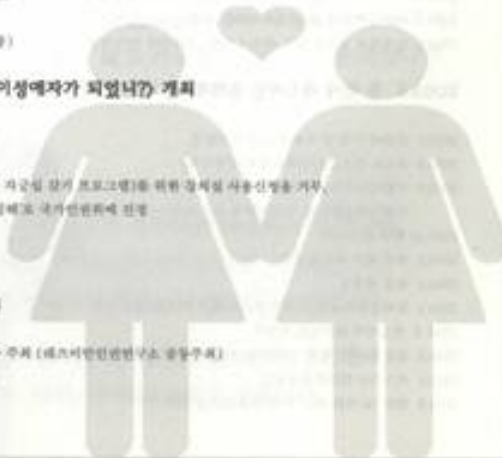
2010.5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결성을 위한 준비

2002.3 학내 정식 자치단위 인준

- 2002.3 3.8여성제일 기념 학내 레지 관세 사업
- 2002.3 3.8여성제일 기념 투쟁과 사회 주체 (전광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ww, 여리끼리 공동주최)
- 2002.3 레지나눔 문화제 참여 - 페르소나 지리, 자요를 날 지리 (이화여대학생회 주최)
- 2002.4 이화 레즈비언 행사 개최
- 2002.4 연세대 동성애자모임 캠퍼스 2주년 기념식 참여
- 2002.5 에이데이 기획단 예/결 기회 (온아어로 등 공동주최)
- 2002.5 이화 대동제 당일 주점 개최
- 2002.6 레지 문화제 '투쟁과 2002' 후원, 참가
- 2002.6-9 최후의 간사 초정 초전 레지나눔 진행
- 2002.7 한국 동성애자 연합 결성
- 2002.8 제1회 청소년 인권학교 주최 (한국여성노동자회 인권운동 단체 연구사, 캠퍼스 2주년 공동 주최)
- 2002.8 대학 동성애자 모임 연합 행사 기획 (서울대 동성애자 모임 아름 005 공동주최)
- 2002.11 중앙대 이안모임 '레지나눔 지리' 영화제 참여
- 2002.12 '퀴어는 영화제' 개최 (여리끼리 공동주최)
- 2003.3 새내기 동성애자 모임 사업 - 플랜키트와 레지나눔
- 2003.3 자치단위 홍보 - 팸플릿 제작, 상설과 자료집 제작, 배포
- 2003.3 반성적학 레지나눔 캠페인 - 자료집, 팸플릿 배포
- 2003.3 3.8여성제일 투쟁과 사회 참여 (다름으로 나누는 연대) 주최
- 2003.4 연세대 캠퍼스 2주년 기념식 참여
- 2003.4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개정 연구지식 설명회 발표
- 2003.5 '퀴어문화축제 2003 조직위원회' 결성
- 2003.5 동성애자 자금지원금기 세비나 진행 (여리끼리 간사 역함)

2003.5 첫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년 여백다 이성애자가 되었나> 개최

- 2003.5 문화제 기간 중 자요를 도난 처리발생
- 2003.5 제1회 청소년 인권학교 주최 (공동주최)
- 2003.5 이화여자대학교가 연남대 동성애자(여성성소수자) 자금지원금기 (2월)를 위한 결집식 사용신청을 거부, 이화여자대학교를 '성적지향에 따른 교육기관의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2003.13 연남 레지 행사 개최
- 2004.3 연남 레지 자료집 준비
- 2004.4 연남 레지 결성
- 2004.4 동학성취에게 연남 레지 공간 사용권 확보를 위한 결의
- 2004.5 반성적학 레지나눔 제정
- 2004.6 토론회 <레즈비언, 그녀들의 다름과 같은 것들> 주최 (레즈비언인권연구소 공동주최)
- 2004.8 레즈비언 인권운동가 MT
- 2004.9 열린 '또 다른 세상' 기획 일러스트 글 기고



2004.10 두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하지만 난 레즈비언인 걸> 개최

2005.5 10대 청소년 인권을 대상으로 한 '지금 난이 아닙니다' 행사 개최

2005.9 세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전전불리니, 이반과 일반> 개최

- 2005.9 문화제 기간 중 자요를 도난 처리발생
- 2005.10 부산여성성소수자지원센터에서 행사 참여
- 2006.9 2006 레즈비언 문화제 '위대한 레즈비언의 화려한 삶' 개최 (한국레즈비언연구소, 레즈비언인권연구소 공동 주최)

2006. 9. 네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하늘을 봐, 변태소녀가 날고 있어> 개최

- 2007.2 이화여자대학원합회 결성
- 2007.3 이화여자대학원합회 제1회 문화제 '지금 합회입니다' 개최
- 2007.5 동성애 바로알기 세미나 개최 (장사 한국레즈비언연구소)

2007. 9 다섯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변하다qwww> 개최

- 2007.11 '자별금지법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공동행동' 참여
- 2007.11 '자별금지법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공동행동 대책모임' 구성
- 2008.3 새내기 성소수자 맞이 환영 및 홍보
- 2008.3 이화여자대학원합회 제2회 문화제 '지금 합회입니다' 개최
- 2008.4 최초의 커밍아웃 레즈비언 국회의원 후보 최현숙 합회대기 사업 - 플랜키트와 레지
- 2008.4 최현숙의원 간담회, 후원회의 지원봉사
- 2008.5 '성소수자 자별금지법대응 및 혐오차별 저지' 결성
- 2008.5 합회자별금지법대응 대학 내 여성주의 다문화대응 설명회 (성공회대 여성주의학연구소, 서울대 여성주의학 문화재단 난리부끄 공동주최)
- 2008.5 동성애 바로알기 세미나 개최 (장사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최재준)

2008.9 여섯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연애> 개최

- 2008.9 문화제 기간 중 무지개깃발 도난 처리발생
- 2008.10 레지 주동자단이 보내 보, 동아리 대표 등 임원위원들을 과감하고 동아리연합회에 비상당사자대표회의를 소집요청, 동아리 대표자들과 무지개 깃발을 전달하는 계획
- 2008.12 '연애소녀에게 날고 싶은 날'과 함께 2008년남동대학에서 개최된 발간
- 2009.2 새내기OT에서 '새대기를 위한 성소수자 바로알기 팸플릿' 배포
- 2009.3 새대기 성소수자 맞이 환영 및 홍보
- 2009.3 2009 LGBT 활동가 캠프 참여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 2009.4 레즈비언 영화상영회 개최
- 2009.5 동성애 바로알기 세미나 개최 (한국인 공동주최)
- 2009.6 제10회 퀴어문화축제 참여
- 2009.6 '저지른것을 잘못이화인들' 결성, 총학의 예산 기금 거부에 항의하는 행동 (사학대학원합회 공동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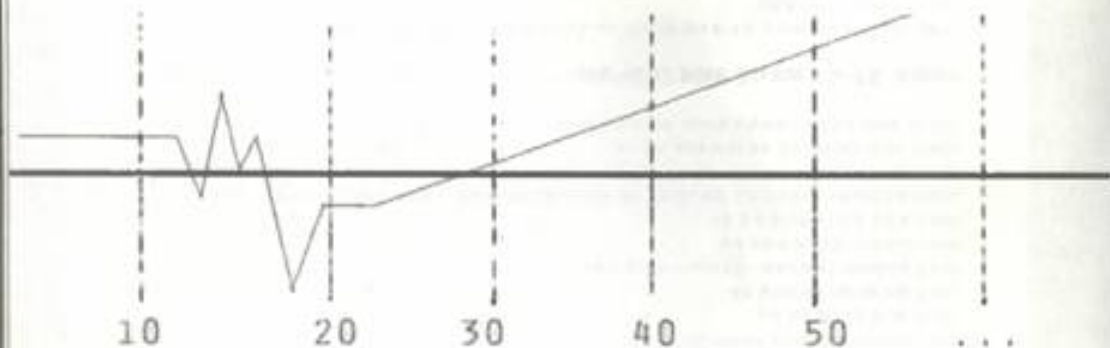
2009.9 일곱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소통> 개최

- 2009.11 제42회 동학성취 연남대 학생회에서는 '합회, 당면 자료, 제정'
- 2009.11 제2회 LGBT 인권포럼 개최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 2010.1 연애소녀하늘을날다와 함께 플랜키트 초전 (http://blog.naver.com/whalqmail)
- 2010.3 새대기OT에서 '새대기를 위한 성소수자 바로알기 팸플릿' 배포
- 2010.3 새대기 성소수자 맞이 환영 및 홍보
- 2010.3 이화여자대학원합회 소식지 발간
- 2010.5 퀴어문화제 문화제 <행동 - 성교육비서> 전시 및 설명회
- 2010.5 학내 레즈비언영화 상영회 개최
- 2010.6 제11회 퀴어문화축제 참여
- 2010.9 2010 대학을 대학박람회 universe 참여

2010.10 여덟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변태소녀 시간을 살다>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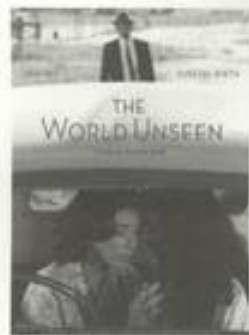
변태소녀들은 어떤 시간을 살고 있을까,



어김없이 변태의 문화제 기간이 돌아왔다. 올해의 주제는 무엇으로 할까 고민해보는데 우리는 문득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흔히 여성의 삶이라고 하면 대중 그려지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고 봐왔던 것이니까. 여자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는 분홍색 아이옷을 가지게 되고 머리를 기르며 치마를 입으며 성장한다. 학교를 들어가 남성의 시선을, 이성에 중심주의를 자연스레 몸에 익히고 사회에 나가 한 남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며 살아가면서 여자 아이는 아가씨로 아가씨는 아줌마로 아줌마는 할머니로 시간을 살다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 대략적인 삶의 그림일 것이다. 물론 요즘엔 다양성을 지향하는 사회라 여성의 삶도 많이 다양해졌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다양한 여성의 삶도 여전히 이성에 '정상' 가족주의의 틀 안에서 논의되고 그 틀을 벗어난 삶은 비가시화되거나 미래가 없는 불행한 삶으로 표상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들은 물음을 던져본다. 레즈비언의, '정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존재들의 삶은 어떤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일까. 왜 그들의 삶은 머릿속에 쉽게 그려지지 않고 그린다 해도 불행해보이기만 하는 것일까. 이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뛰어난' 시간을 그려보기로 했다. 레즈비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던, 살아가는, 살아갈 시간들, 우리조차도 쉽게 그려보지 못했던 변태소녀들(레즈비언들)의 삶을 그려보면서 '정상적' 삶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삶의 시간들이 그대들과 '함께' 그리고 다양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물음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달려있다.**

모든 인간들은 아마도 온갖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종자들일 것이다.



흑백분리정책이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월드 언썬** (The World Unseen, 2007, 영국/남아공, 115분)은 사회 내에 다양하게 얹혀 존재하는 차별과 편견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이 영화는 가족 간의 관계, 인종 차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끊임없이 마주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감각을 자극시킨다. 그렇다면 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레즈비언은 어떻게.



영화로 훑어보는 by 랄다

레즈비언의 삶

유년기



영화 **진영이** (2006, 한국, 19분)에서 진영이는 흔히 말하는 '모범생'인 초등학교 여학생이다. 그녀의 집에 엄마의 학교 후배가 머물게 되면서 진영이는 그녀를 좋아하게 된다. 자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던 진영이는 그녀에게 고백하기로 한다. 성장기에 겪게 되는 성적체성의 인식을 통해 소녀가 여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의 성장통을 투영하지 않으며 밝고 가볍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연출자의 의도를 잘 살피다보면 아직 어리지만 어리지않은 진영이의 성장이 남의 이야기처럼만은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기



영화 **나비** (蝴蝶: Butterfly, 2004, 홍콩, 124분)는 사실 30세가 된 고등학교 교사가 주인공이다. 주위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던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한 여자와 마주치면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감정이 깨어난다. 이를 외면하기위해 일과 가정에 집중하지만 가슴 깊이 묻어둔 감정들을 이제는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영화는 그녀에게 대면을 촉구하듯 영화는 그녀에게 대면을 촉구하듯 10대 시절의 강렬하지만 뼈아픈 첫사랑의 기억을 30대가 된 그녀의 현실 사이에 배치한다. 현실의 이야기와 함께 진행되는 그녀의 이전 사랑 이야기는 이미 끝나버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미묘 하게 현재 그녀가 다가가려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아름답다.

청·장년기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은 보통 청년기가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결혼에 대한 압박이 심해진다. 레즈비언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한 압박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개인마다 다양할 수 있다.

영화 **식물학자의 딸** (Les Filles Du Botaniste, 2006, 프랑스/캐나다, 105분)에서 민 또한 결혼기의 나이에 스승인 유명한 식물학자의 아들과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결혼에는 민과 식물학자의 딸 안 둘만이 아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 비밀은 화요일 5시 혹은 금요일 2시에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또 다른 영화 **캔디레인** (Candy Rain, 2008, 대만, 106분)에서도 결혼의 압박을 한민준은 받아보았을 다양한 연령대의 레즈비언들이 나온다. 이 영화에는 캔디레인이라는 정체 모를 이로부터 소포를 받는다는 공통점 외에는 너무나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 네 커플의 이야기가 유니버스 식으로 진행된다. 각기 다른 사랑방식, 만남과 이별을 가진

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너무 어려서 혹은 서툴러서 떠나간
쓰라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영화이다. 어떤
사람들은 함께 있어 행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행복하며, 어떤 사람들은 함께 있을지라도 절대
행복해지지 않으며, 어떤 사람들은 함께 하지 못해
불행하다.

노년기

기나긴 시간을 거쳐 우리는 언젠가 노인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결혼은 물론 사소한 제도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레즈비언의 노후는 어떨까. 영화 **프리헬드**
(Freeheld, 2007, 미국, 40분)는 현재 미국의 노년
레즈비언의 현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이다. 로렐은
뉴저지 주 경찰관으로서 25년을 보냈다. 암 선고를 받은
그녀의 정의를 위한 마지막 싸움은 이제 사랑하는 이성을 위한 것이다. 자신이 받을 연금을
동성 반려자 스테이시에게 상속하고자 하지만 시의회에서 그녀의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영화는 로렐의 험난한 투쟁기를 그린다. 유수의 영화제들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주목해야한다면 이 영화의 매력을 모두 느껴보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레즈비언으로 혹은 비혼 여성으로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현실을
고민하게 하며 동시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움직임을 촉구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주목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영화를 통해 레즈비언의 삶과 시간의 흐름에 대해 느껴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단편적인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정체성을 한 몸에

담고 있는 개개인이 스스로의 시간을 재구성해볼 때 그것이야말로

정 귀여운 혹은 다양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앗! 그래도 영화들은 많이 보러 와주시길! :D



2010년 10월 4일 월요일

구름 조금

안

나는 요즘 구슬이랑 사이가 ~~좋아~~아져서 고민이다. 저번에 구슬이가 우리집에서
잡는데 구슬이가 우리반에서 좋아하는 애가 누구냐고 계속 물어왔다. 널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말하면 말해준다고 했다. 그래서 여자애들 대부분이 좋아하는
반장 신승현이라고 했다. 근데 구슬이가 걔가 왜 좋아하고 해서 착하고 엄도
답한다고 하니 갑자기 와네면서 걔같은 이상한 애가 뭐가 좋아하고 했다.
와가나서 이복을 뺀 것 같아 느낀다. 그냥 자려고 했는데 금금해서 잠이 안왔다.
그러는 널 누가 좋아하는데, 구슬이가 대답을 안했다. 나만 말해서 억울했다.
구슬이가 조금씩 지는아, 자? 하고 물어봐서 지는걸 했다. 구슬이가 등에게다가
금슬을 쓰길래 미안하다는걸 알았는데 갑자기 구슬이가 보모를 했다. 암막 둘라서
계속 지는걸 했다. 가만있느라 힘들었다.

근데 이제 눈이 앓을거다. 네가 그 이유로 눈도 못 마주치고 괜히 다문앓음하고만
놓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구슬이가 싫은건 아닌데 다르게
보인다. 애들이 말하는 페르마는거 같다. 구슬이는 나를 좋아하아보다, 나는
구슬이에 비해 예쁘지도 않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좋아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여자인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게 이상한것 같다. 유, 나도 구슬이가 너무
좋는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남자를 좋아하는 거랑 같은 건지 모르겠다.
답답해서 일기에 털어놓는 것이다. 말리 와해하고 싶은 마음 뿐이다.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청소년의 '나 없는 내 인생' 성정체성 찾아 삼.만.리

by 아라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

영화 <친구사이?>는 주인공 석이가 군 복무 중인 애인 민수를 만회하러 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단편 영화이다. 지난 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영화에 대해 동성애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에 제작사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판단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법원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가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며 "동성애를 내용으로 한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의 일반적 지식과 경험으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영등위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영등위가 선정적이라고 주장하는 <친구사이?>는 이성애를 다룬 다른 15세 등급 영화에 비해 오히려 선정적 장면이 적게 그려진다. 주인공이 게이 커플이 아닌 이성 커플이었다면 아마도 무난히 통과되었을 장면을 문제삼는 영등위의 주장은 동성애 혐오에 의한 판정으로 여겨져 논란이 되었다.

그렇다면 수많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친구사이?>

영등위의 주장처럼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어떤 것'이라면 동성애자인 청소년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많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자신과 같은 성정체성을 표현하는 매체의 부재 속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 동성애를 담고 있는 매체들은 <친구사이?>의 경우와 같이 청소년관람불가 또는 불건전이라는 상자에 담겨져 청소년으로부터 격리된다.

동시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성애 중심의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동성애가 부정 또는 무시되는 사회에서 자라고 있다. 청소년의 동성애는 '한 때' 이성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겪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여겨지며, 심지어 불명한 아이들의 비행으로까지 여겨지기도 한다. 결코 지금보다 더 나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교육환경에서 자란 원직 교사들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어린양으로만 대하고 있다.

교과서 속 철수와 영희 커플, 내 이야기는 어디에?

이것은 '선택의 자유' 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작게 보자면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간 청소년은 이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 외에는 선택권이 없다. 더 크게 보면 청소년들은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제시 받지 못할 뿐더러 성적 자기결정권 또한 없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스스로의 성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매우 수동적이다. 성 정체성에 대한 질문 제시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동성애자들이 청소년기에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는데도 그 어떤 제도적 성교육도 동성애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듯한 마분한 것으로 되어있는 성교육은 이성애를 전제로 한 생식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 이전의 사랑과 선택, 정체성이라는 과정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정규 교과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문장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지경도록 철수와 영희 커플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영희는 늘 부지마만 입었으며, 철수는 축구공과 함께였다. 바둑이는 빠지지 않았을 것만 같다.



<여고괴담2>

'나는 누구인가' 를 묻지 못하게 하는 교육

이러한 선택의 가능성이 배제된 교육은 청소년 인권에 대한 무시가 기반이 된다. '아직 미숙해서 판단력이 흐린 우리 청소년들이 동성애가 나오는 영화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면 어찌지?'라며 '모방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열등위처럼 청소년이 아직 이성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스스로 성적체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성적체성은 물론 자아 정체성 확립의 시작점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보기에 없는 답을 선택한 청소년들이 돌고 돌아서 힘들게 정체화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위치는 매우 모호하고 거의 어떠한 권리도 인정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 확립의 기간인 어경 중의 바로 첫 걸음부터 자신을 부정 내지는 무시하는 시선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른 길이야."

"'다 철들면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변한다고 한다. 성적체성도 변할 수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모두 길을 만들며 걷고 있다. 청소년기의 동성애가 한 때의 과도기적인 감정일 수 있다면 청소년기의 이성애 또한 과도기적인 감정일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말해져야 할 것이다. 동성애를 이성애와 동등한 하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청소년의 인권을 인정하여 이러한 다양한 길을 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길을 이탈한 것 같아 눈치 보는 우리 친구에게 '그것도 길이야.' '우리 모두가 다른 길이야.'라고 말해주고 싶다. 드러낼 수도 없는 고민으로 마음앓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하루빨리 나 '있는' 내 인생을 살도록.

(마오 마오)



포토에세이

by 연연



감정은

말로 토해내지 않으면,
멋대로 출구를 찾아버린다.



내가 그린 십오 년 된 사진 한 장



'사랑은 고르는 게 아냐...'



구름이 많이 모여 있어
그것을 견딜만한 힘이
없을 때, 비가 내린다.

슬픔이 많이 모여 있어
그것을 견딜만한 힘이
없을 때, 눈물이 흐른다.



오늘만 참자. 내일이면 추억일 테니까

내 부모님과 내 친구들과 내가- 그러니까 나의 세계 속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레즈비언의 이미지는 문화 속의 마녀나 괴물처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 비슷했고, 나는 거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었다. 갓 중학교에 입학해 친구들이 소문이 무성한 '레즈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남들이 말하고 상상하는 이미지의 레즈비언이 아닌 나는, 레즈비언이 아닌 또 다른 그 무엇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억지로 꾸며낸 생각이었지만 일단 그렇게 레즈비언이라는 이미지와 나를 분리해 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했다. 사람들이 아무리 레즈비언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물어봐도 아무렇지 않았고, 심지어 무리에 섞여 교내에서 손가락질 받던 아이들에게 멀리서 섞인 비웃음을 보내기도 했다. 정작 내 자신이 그런 핏담과 소재가 되기 전까지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거기에 또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고 그런 일이 뒤섞여서 같이 지내던 친구에게 한탄하듯 반 토막 정도만 이야기를 전낸 것이 계기라면 계기였다. 그 전부터 영 마음이 맞질 않던 친구 중 한 명과의 사소한 다툼 후에 편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나의 비밀이 상대편 아이들의 무기가 되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처음 보는 아이가 나를 보며 키득거리는 모습에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던 나는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미안해'로 시작하는 내용의 사과를 하러 그 아이들을 찾아갔다. 그 아이들이 바라왔을 말들을 하면서 죄인의 얼굴로 그 애들을 하나씩 쳐다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아이들에게 자존심 켜고 사과를 해야 하는 사실도 슬프고 억울했지만 무엇보다 나의 잘못 속에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게 포함된다는 게 더 억울하고 억울해서 울었다. 내 반토막 이야기 속에 포함된 나의 정체성, 나의 진실성 이런 것들이 남들에게 어떤 연예인이 어디를 성형했다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의 가십거리라는 것도 슬펐다. 그래서 밥을 먹고, 수업을 듣고, 청소를 하는 내내 눈물을 똑똑 흘렸고 집에 가면서는 엉엉 울었다.

아무의 이야기

왜 변날에 들어왔어요?



내가 결국 남들이 욕하는 그 레즈비언이구나, 남들에 의해 정체화된 것이 부끄럽지만 결국 그렇게 깨닫게 된 것도 그때였다. 레즈비언이라는 것이 약점이고 힘박거리가 되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에 분노(!!)하게 된 것도 그때 영영 올면서였다. 제가 겪고 나서야 성내는 게 부끄럽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오글오글 그 자체지만 **진심을 담아서 세상은 잘못됐어, 내가 바뀌야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도 그 때의 일 덕분이었다.

왜 빈날에 들어오게 됐어요? 누군가가 물기에 어버비, 엉망으로 대답해놓고 집에 와 생각해보니 그런 일 때문인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글을 쓴 건 제대로 대답해주고 싶어서다. 내가 이래서 빈날에 들어오게 됐어요! 하고.

이제서야 고민 중

(주절주절) :: 하래의 이야기



올해 봄, 어찌 보면 이르지 않은 시기에 빈날에 가입하게 되면서 비교적 갑작스럽게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되었다. 어떠한 장소에 들락거리면서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게 되었고, 몇 번의 인터뷰도 해 보았으며 (빈날 가입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지만) 연애 때문에 골머리도 켜어보았다. 이 중 특히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터뷰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나는 절대로 부모님에게는 커밍아웃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듯 이야기했다. 그 인터뷰 이전에도 생각해왔던 일이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것이 고민이다. 얼마 전 가족끼리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때 엄마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꽤 다투었다. 어렸을 적 언젠가 난 결혼을 안 하겠노라고 내뿜은 후로 계속해서 있어온 다름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이번이 가장 심했다. 그 동안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다른 곳으로 화제를 돌리거나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등 마는 등 하며 넘겨왔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에게 커밍아웃을 한다는 것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가족들과 지금처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생각이다. 그리고 나는 확실히 남자와 결혼해서 살지 않을 생각인데 둘 중 어느 하나만 고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간의 해결책은 연애에 관심 없는 척, 눈이 너무나도 높아서 아무도 성에 차지 않는 척 정도였는데 아직 이십 대 초반이라 그런지 결과는 꽤나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이번 일 이후로 이런 해결책으로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것은 (아버지는 무리수라는 생각이고) **어머니에게는 커밍 아웃을 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다. 사실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신자이셔서 어쩌면 이것 또한 무리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남자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만 온전한 개체가 되고, 설사 혼자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함께 살지 않으면 노후가 너무나 외로울 것이라고 매번 강조하실 때마다 걱정이 된다. 정말로 외로울까 봐서 하는 걱정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나의 애인과 함께 살게 될 때 어머니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지에 대한 걱정이다. 한때는 늙어서도 혼자 고양이와 함께 살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요즘은 나중에 애인과 결혼은 못하더라도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렇다고 어머니께 무작정 커밍아웃을 하기도 힘들고, 커밍아웃을 하지 않고 눈치가 꽤 빠르신 어머니를 속이면서 애인과 함께 사는 것도 힘든 일이니 고민해도 아직 답이 나오지 않는다.

아마 많은 레즈비언(및 성소수자)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더 일찍 했을지도 모르는 고민이지만, 나는 태평하게 이전의 해결책만으로 만족하고 발뺌하고 지내다가 이제 와서야 한껏 웅크리고 중얼중얼 고민 중이다.

2010년 8월 17일,

가을이 가까워졌다

:: 런던의 이야기



잠이 오지 않는 밤. 한 번 뿐인 오늘을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하다가 일기장을 펼쳤다. 평소였다면 잠이 오지 않아 침대 위에서 뒤척이는 게 괴롭고 심심하다고 느꼈을텐데, 지금은 기분이 나쁘지도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 채 무심코 글씨를 적고 있다.

삶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고 싶단 느낌 뿐이다.

오늘은 영화관에서 스텝업 3D를 봤다. 진아와 함께 보았다. 진아는 몇 달 전부터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다. 오늘 본 영화는 '춤' 이 소재다.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니 함께 보았다. 내가 3D 안경을 쓰면서 선글라스인 것 마냥 온갖 꿈을 잡았더니 둘 다 웃음보가 터졌다. 영화를 보는 내내 리듬이 흥겨워서인지 함께 있는 것 때문인지 우리 둘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춤' 은 참 매력적이다. 춤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과 친해지기도 하고 유대가 생긴다. 게다가 패션, 음악, 예술과도 깊은 조화를 이루는 자유로운 장르다.

어쩌다가 진아와 영화를 함께 보러 다니고 깊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친하게 되었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 '즐겁고 싶다면 이유를 따지지 마' 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내게는 정확한 계기가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학기 초에 처음으로 들었던 L클래스 생각났다. 국제여성영화제의 이벤트인 퀴어나잇을 했던 때이다. 레즈비언 축제의 밤, 힙합, 댄스, 디제잉, 유머러스하고 신나는 밤이었지만, 처음 가본 L만의 공간은 아직 낯설었다. 공연이 끝나고 댄스타임이 시작되자, 나는 자리를 떠나야 했다.

춤을 출 줄 몰라 신나는 분위기에 동참할 수 없는 절망을 겪었던 나는 댄스를 배우기로 했다. 처음 몇 달은 자신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전혀 없어서 정말 힘들 뿐이었다. 답답함 또는 외로움을 느끼던 나는 같은 반 사람들과 모임을 갖게 된 날이었다. 처음 본 사람들 (같은 수업을 듣지만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낯했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차 마음을 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날 그녀를 만났다. 첫인상은 차가웠지만 알게 될수록 다정하고 재미있는 아이 같았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진아와 오늘은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다. 내가 약속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가서 기다리다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던 게 지금 잠이 오지 않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영화를 보고 나와서 저녁을 먹으며 영화에 대해 춤에 대해 미국에 대해 요즘 듣는 음악에 대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 했다. 식사를 마친 후 배를 꺼지게 하려고 조금 걸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 벤치에 앉아 함께 대화를 나눴다. 3시간 가까이 이야기 했던 것 같다. 캔맥주를 들이키면서 바라본 살구 빛 노을은 참

동성애에 대해 개방적인 곳이라서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고 했다. 런던이 참 좋은 곳이구나! 언젠가 함께 유럽여행을 가기로 약속했다.

'변화,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나는 스무 살이 될 때까지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알고 나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변화에는 두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용기가 있으면 된다. 우리의 관계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애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1시간의 기대감보다는,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를 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솔직해져야겠다. 우리의 대화는 이제 시작되었고, 한 번 시작된 대화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지.. 우린 귀찮을 보다는 외로움 때문에 오랫동안 일어나기 싫었던 것 같다. 낯선 하늘이 꽤 높아지고 파래서 가을에 가까워졌다. 언젠가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던 바보처럼.. 이제 다시 사랑하고 싶다.



나는 언제부터
레즈비언인걸
알게 되었나?

:: 아마의 이야기

언젠가 변날 세미나에 이런 질문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생각해보았는데, 사실 내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어릴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가 아닌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었던 것 같다. 어쩌다보니... 라는 경우보다 내 경우는 좀 더 확실하게 언제 어떻게 어떤 계기로 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으니.

시작은, 나는 늘 심심한 아이였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는 만화를 참 좋아했다.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 학교보다 책방 출석률이 더 좋을 정도로. 우리 언니도 만화를 참 좋아했다. 나보다 더했다. 어느 날이라고 하기에 그날이 언젠지 모를 만큼 많이 어렸을 적에 언니의 만화책을 함께 보기 시작했다. 만화에는 동성애라는 주제가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하여간 여러 방식으로 참 많이 등장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구나. 사회의 반응은 이렇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BL이란 장르로 알게 되었고, 덕후 스타일로 만화를 섭렵했다. 그리고 가끔 심야에 하는 다큐멘터리에 동성애라는 주제가 나오면 거실에서 조용히 티비를 시청하던 언니가 있었다. 나는 그 옆에서 암전히 티비와 언니를 관찰했다. 음, 언니가 어리모로 나를 크게 정제화 시켰다.

나는 늘 심심한 아이였다. 라는 건 무슨 상관인가 하면 나는 늘 너무 심심해서 새롭고 다른걸 찾았다. 그런데 나는 사실 보고 들은 건 실천을 하고 마는 위험한 시청자형이었다. 그때 내가 접한 매체들에 그려지는 동성애는 되게 위험하고 비밀스럽고 야하고 자극적이고 매력적으로 그려졌다. 마침 귀엽고 착하고 바보 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쩌면 그래서 조금 의도적으로 그 친구를 좋아한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의 진짜 첫사랑이 되었다.

나의 첫 여자친구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웠고, 개 이후로 남자보다 여자가 좋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실해졌다. 앞으로 영원히 남자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해도 후회 없을 정도로...



못 오를 나무 증후군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사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만 좋아하는 이상 증세예요. 예전에 드라마 시티에서 장희진이 귀엽고 상콤한 그녀가 실연복수 전문가 등장했는데 그 이유가 못 오를 나무 증후군에 걸려서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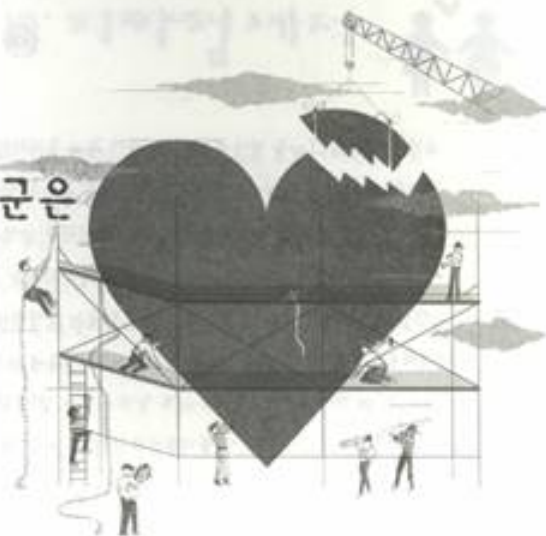
몇 달 전까지 제가 그런 병에 걸려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이성애자만 좋아했거든요. 어때껏 짝사랑만 해온 저는 참... 못 오를 나무만 봤어요. 그런데 그게 참 좋았어요. 못 오를 나무가 저 자신에 대한 패배감, 열등감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열렬한 열망을 가질 수 있었죠. 어차피 그 사람과 될 가능성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이 사랑만 하면 되니까요. 때론 이따금 해야 하나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모든 걸 부어 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들어부었어요. 시간이든 돈이든 감정이든..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죠. 저도 나이가 있는데?

이젠 그 병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사랑을 찾을 때가 온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성정제성을 확립하고 나니 앞으로 일들이 무지무지 기대가 돼요. 사실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행복할 거라는 확신은 들어요.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저 자신에 대한 배신을 하지 않고 살아가니깐 제 삶을 당당하게 여기고 살아갈 거예요.

못오를 나무 증후군은

이제 그만-

:: 꼬밍의 이야기



썸썸!

by 연연

하루 생각나는 건! 어렸을 때 JTL 춤자들이 신났었던 그 아이스크림이다. 지금도 팔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아이스크림이 정말 썸썸을 부를까? 라는 생각에

썸, 좋아하는 건! 생애 첫 기억이 난다. 아이스크림은 추억으로 부쳐두고~. 그리고 보너스 학생이 되고 나서 내게 이렇다 할 썸썸이 있었나? 사실 1학년인 내가 겪은 것 뭐 그리 많은 것 없었지라는 나를 총이진진한 상황들이 있었다. 그 결과 이 글을 쓰고 있는 8월에 다다른 지금엔 저기 저기 썸썸 향기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3월의 이하는 새내기들의 향연이었다. 풋풋함, 아, 이 곳이 과연 천국이구나. 어고, 어때의 길을 걷는 것이 알려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난 만족한다오' 미소를 짓곤 했다. 고등학생 때까지 누릴 수 없던 자유와 넓은 선택의 폭에서 새로운 만남의 장들이 새록새록 피어나고 있었다.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새로운 사람들을, 평균 네다섯 명쯤은 내 문을 뚫어주는 친한뻘들은 하루하루가 설레는 이유이기도 했다. 여기서도 여자, 저기도 여자, 저기도 여자! 온통 여자라서 아 내가 여대인 게 좋구나! 일비구나 하고 있을 때,



@ 학교에서

교단 수업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전에 좋아하던 사람이란 짧은 참이 너무 많은 친구였다. 형제관계, 형제형, 팔을 싫어하는 것 등 갈수록 볼수록 많은 편이 많은 그녀. 그녀와 만날 때는 온갖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제스처를 활용하였다. 언젠가 한에서 들었던 소소 립도 활용해 보았다.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마주쳤을 때 팔꿈치에서 약간 뒤쪽을 잡고 붙어있게 한다던가. 숫알 때는 어느 사람처럼 하하하하 웃지 않고 그런... 뭔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제스처/웃음을 활용한다던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틀레 없고 웃기는 짓이었지만) 결국에 서로 걸자리를 항상 알아주고 함께 뽀뽀공부를 하는 등 꽤 가까워졌다. 그러나 너무 늦게 숙연히 알게 된 사실. 그녀엔 1년된 남친이 있다는 거. 스가 물거품인가!!!!!! = = 그 땐 정말 한숨이 뚝.

@ 동아리에서



학기 초는 동아리 모집 기간이다. 역시 그런 기회를 놓칠까 모나 실이 적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동아리에 들어갔다. 목적은 취미 공유, 덩으로 편람을~ 동아리에는 다른 과 학생들도 많아서 참 좋다 느꼈다. 그 곳에서는 아무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같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지, 숙연히 많이 마주친다는지, 대충도 할 못했다. 이런 적년 인연인가? 첫인상으로 잘 판단하지 못하는 나는 갈수록 그녀에게 점점 빠져들었다. 처음 손이 맞닿았을 때, 느낌이 참 보였다는 거, 천재의 보고 싶어서 그녀가 나을법한 모임에는 손 나갔지만, 나보다 성숙하고, 현실적이고 한편으로 취미를 적절하게 현실적인 선에서인지, 과연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던 것 같다.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고 할까? 행락이 길에만 느껴지는 이유도 그녀를 볼 수 없는 것 때문일까?

@ 지하철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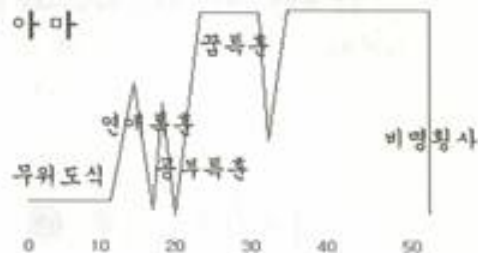
침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그녀를 보았다. 아, 그녀와 많은 사람을 봤다. 노란 보라를 쓰고 아이팟을 들고 있었다. 그렇다, 난 아직도 이머금씩 그녀를 떠올린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나는 빈도가 줄어가지만, 더 이상 사랑의 대상도, 그리움의 대상도 아니다. 다만 누군가 어떤 바깥의 사람이 온다 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그녀다. 사랑을 느끼게 된지 어느덧 5년, 오랜동안 좋아했으니 감정도 오래가나 보다. 그래도 지금 그녀에 대한 감정은 복잡하거나 슬프지 않다. 더 이상 가르치 않게 되어버린 나. 그리고 아픈걸 두려워하는 나.

대담 :: 인생곡선

람다> 오늘의 대담 주제는 인생곡선이에요. 자기의 인생곡선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나 명제를 말하고, 그 명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해요.

전원> 황 ~~~ 짹짹

람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 대담 목표는 신입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에요. 구입들은 좀 줄이고 신입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길 바라면서... 스타트는 제일 옆에 있는 아마!



아마> 제 인생의 명제는, **특훈**입니다!

람다> 그럼 설명좀...

아마> 사실은 특훈..과 게으름이에요. 어때껏 아무도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보시면 10대 중반 전에는 아무것도 안하며 살다가.. 10대 중반이 되면 사랑에 눈을 뜨고 연애특훈에 발동이 걸리는거예요. 그런 다음에 연애특훈의 발동이 꺼지면서 인생곡선이 매우 급 하락을 하고.. 입시를 앞두고 공부특훈모드로 들어가서.. 20살이 되었으니, 다음에 있는 특훈은 꿈과 미래에 대한 특훈입니다. 물론 연애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있지만... 그래서 이때부터는 꿈을 위해서 특훈을 하였으나 20대 후반이 되면 자만감에 빠져서 인생이... 하지만 그 이후에 마음을 다잡고 탄탄대로를 걷다가 어느날 비명횡사합니다.

하레> 꼭 비명횡사여야 하나요?

아마> 제가 극적인걸 좋아해서...

람다> 자, 아무

아무> 저의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근대 그래프 자체에서 성장이라는 의미는 별로 없고요, 그냥 느끼기에 제가 얼마나 행복했나 정도요. 제가 10대까지는 별로..

이제 20대가 됐으니깐 점점 좋아지고..

나나> 으음?!

람다> 너무 간단한데.. 10대 전의 이 잔잔한 그래프의 모습은 뭔가요?

박하> 예전에 듣자하니 뭐, 유치원때부터 여자를 좋아했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아무> 또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대 전까지는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없고 좋았는데,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런게 욕을 먹는 거구나라고 알고. 그래도 아무팅이 힘들기도 했지만 성장하는 재기가 되기도 하고, 재수한것도 많이 생각하고 배우는 과정이기도 했고 그래요.



아무

하레> 음 저는 **감소**를..

람다> 우음해 ~ 감소??

하레> 완전 감소가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마지막에 점근선이 있습니다.

하레> 저는 초반에는 정말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엄마아빠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는 착하고 이름받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95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람다> 대단하네. 엄청나게 행복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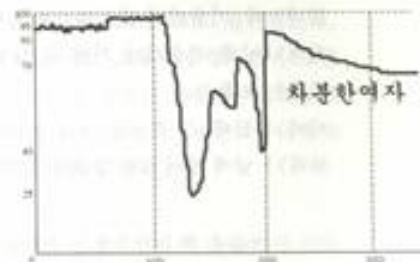
하레> 네. 꿈 떨어졌을 때는 그냥 별거 없이 동생이랄 싸우거나 그런거. 제가 새로운 것에 잘 들뜨는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더 들떠서 97.

아마> 완전 구체적...

하레> 거기서 저는 한 저학년 때 까지 123학년은 또 아무 생각없이 행복하게 지내다가 4학년 즈음부터 점점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5학년, 6학년 때 최하점을 찍습니다. 25입니다... 현재까지의 저의 하강입니다. 25를 찍습니다. 그때는 어..대놓고는 아니지만 약간의 온파였거든요 $\pi\pi$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때 성적을 바꾸죠. 원래는 약간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람다> 언발리버블

하레



하레> 중학교 들어오면서 확 바뀌서, 그 때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랑 만나니까 잘 지냈어요. 3학년 땐 고등학교 입시에 부딪혀서 잠깐의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쫓겨들어 집니다. 좀 떨어졌다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또 새로운 시작이기때문에 무척 들뜨고 상대적으로 좀 외곽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성적이 매우 높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거의 한 79까지 갑니다. 이제 점점 수능과 대학 입시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점점 떨어지면서 수능 직전에 40을 찍죠.

람다> 음.

하레> 그리고 합격하고 입학하면서 다시 90으로 올라옵니다.

람다> 들쭉네요.

하레> 네. 매우 들쭉죠.

아마> 중간이 없어...

하레> 급격합니다...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좀 천천히 떨어집니다. 이때도 물론 떨어지긴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면서 한 스물다섯쯤 부터 거의 70과 평행을 이루면서 한 69를 점근선으로 70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이렇게해서 계속 잘 갑니다. 왜냐면! 저는 점점 차분해질 거거든요...그래서 이제 이 즈음 되면 어느 정도 삶을 살아서 차분한 여자가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율기가 매우 낮게 감소하는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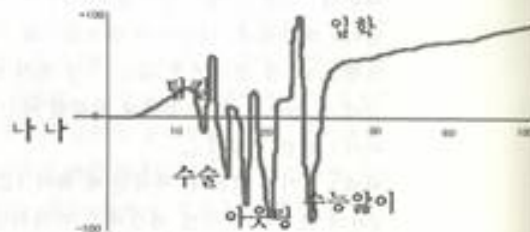
아마> 안정??

람다> 아. 기율기의 감소였군요! 아하

하레> 이제 기율기가 거의 0 이됩니다. 계속 70으로 30대 이후까지는 쫓 갑니다. 이후는 모르고.

아마>> 근데, 그 분(하레의 현재 예인!)의 등장이 인생그래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요?

하레>> 낮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율기가 매우 완만해 지죠.



람다> 그다음 나나.

나나> 음... 저는 주제가... 없어요.

그 이유는 제 인생의 분기 마다 마다 영향을

미친 주제들이 매번 달랐기 때문에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땐 아무 것도 모르니까 0으로 시작했어요. 살다보니까 좀 살만한 것 같아서 포옴씩 올라가다가, 중학교때 여자가 여자를 만나는 종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캄캄 놀래서 그런게 있구나~ 어우. 쯤, 어우. 그땐지 아니?? 하면서 그.. 친구들을... 멀리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하레> 텅텅.....

나나> 막 친구들한테가서 아, 제 여자만난대하고 욕하고....

아마> 나쁜 어린이잖아!

나나> 반성하고있어요.. 그 시기가 마침 사춘기라서 친구들이랑도 자주 싸우구.. 술술 입마한테도 대들고.. 하고, 또 내 스스로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정체화를 한다는 일이 저한테는 좀 힘든일이라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알아를 하던 분과 연애를 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편도 두시간의 장거리 연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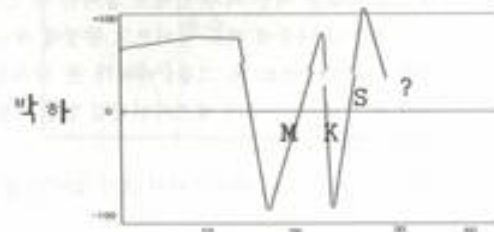
람다> 대단한데~

나나> 잘 지내다가 저희가 그때 아직 어렸기 때문에 너무나 부주의하여서 입마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입마가 정말 내가 알고있는 입마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 엄청 화를 내서서, 머리를 잘라버린다고 그러시고, 그 와중에 개망 해버리 그 이후로 연락수단을 차단당하고 인생곡선이 이렇게 급하강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못만나다가 친구들 도움으로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좌악 올라가다가 그 와중에 제가 크게 아팠어요.. 학교도 못가고, 그렇게 병원에서 수술을 잘 끝내고 학교로 돌아갔는데, 사람이 큰일을 겪고나면 인생이 완전!! 아름다워보이잖아요. 그래서 인생곡선이 그냥 100까지 좌악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렇게 잘 살다가 또 중학교 졸업할 때 즈음에 수술을 한 번 더 해서 살짝 떨어졌는데, 또 잘 지내게 되서 점점 지낼만하구나하고 올라가다가 수능을 볼 날이 되었어요. 제가 수능알이를 심하게 해서...

아마> 비련의 여주인공..

나나> 그렇게 수능을 다행히 성공리에 좌악 끝내고 나니까 인생곡선이 좌 올라가서 100에 갔어요. 그래서 연애하느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앞으로는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도 잘 만나고 해서 잘 살게되지 않을까~ 싶어요~?

람다> 오... 다들 희망론.. 뻗살론이 요즘 유행이라더니...



박하> 나도 10대까지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당히 부모님께 사랑받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때 처음으로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내가 예전에 남자애를 좋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편가 아무 생각이 없었어.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에 대해서.. 바이섹슈얼이나 레즈비언이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그게 나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하필 그 때 한참 팬픽, 이반 이렇게 유행해서.

나나> 맞아맞아맞아.

박하> 그 문화가 유행했던 시대에~ 우리학교엔 그 문화가 심하지는 않았고 그냥 무리 몇몇 있었는데... 근데 어차피 나는 그런 스타일도 전혀 아니고 그렇다고 좋아했던 여자 친구랑 사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고, 그냥저냥 정체성에 대한 생각없이 고등학교에 갔는데 3학년 때 처음으로 어떤 여자애랑 사귀게 되었어요.

나나> 어찌다가?

박하> 친구었는데 걔가 고백을 했어. 그런데 사귀는 동안 우리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아서... 나는 몹시 삼짍게 되었어요. 고3였는데 다들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만 혼자 요러구 있구.

아마> 실연의 아픔~

박하> 하여튼 제가 그 여자애랑 사귀면서 확실하게 아 난 바이구나 정체화를 하게 된거고, 특히 고3때에 퀴어 퍼레이드에 갔었어요. 그 느낌이 강하잖아. 아, 내가 이 정체성에 속하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함께 있구나하는 느낌. 어쨌든 이제 대학교에서 1학년 때는 모두다 그랬듯이 1학년이니까 불루랄라 동아리도 하고 불루랄라 그때까진 즐겁게 살았어요. 그러다 자취하고.

람다> 근데 왜 나왔어?

박하> 바로 그 얘기를.. 우리 집이랑 학교랑 별로 안멀잖아. 한 20분. 다들 그걸 궁금해하지. 엄마에게 내가 커밍아웃을 하게 됐어요.

나나> 아이구

박하> 그게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막 말해버린거야. 엄마 나 여자가 좋아, 이랬더니 나나> 대박이다 진짜.

박하> 처음에는 그 말을 잘 못알아듣는거야. 어른들이 개념 자체를 몰라서, 아그래 엄마도 어렸을 때는 여자 선택도 좋아한 적 있는데 근데 다 결혼도 하고 그런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나중에 책도 찾아보고 동성애 개념을 엄마가 이제 깨달은거야. 근데 엄마가 아까한테 말했어요 또 그걸. 아빠가 못 받아들이는거야. 동생들 2명이나 있는데 같은 집에 사는 언니/누나가 레즈비언인걸 알면 나쁜 영향을 받는다고 했지.

나나>> 아이구 ~~~

박하>> 하여튼 그런 식으로되서 내가 집이 엄청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살게 되었어

하레> 나갈 때는 집안의 지원이 조금 있고?

박하> 응, 사실 현재만 내가 내고 보증금은 집에서...

하레> 그럼 쫓겨난게 아니라 그냥 격리 조치네 ㅋㅋ

박하> 맞아 막 격하게 집에서 쫓겨난 건 아니고 떨어져 사는게 좋겠다 정도. 용돈은 얼마 집은 어떻게 쇼부를 쳐서 나왔어요. 사실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지. 아웃팅 당할 때 완전 언 글겨서 알거지도 쫓겨나는 애들도 많은데, 나는 그래도 가고싶을 때나 명절때도 집에 가고 지원도 다 받으니까. 하튼 열심히 싱글 라이프를 살고.

나나> 그러다가~

박하> 어떤 남자애를 만났고. 뭐 어차피 원래 바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상할 건 없었고, 한 1년 정도 이러쿵 저러쿵 살다가 걔가 군데가게 되서 자연스레 헤어지고..

나나> 음..

박하> 그러고 나서 바로 그분을 만났어. 올 학교 동아리 친구였던.

나나> 오셨군요.

아마> 그분~

박하> 여기 그래서 100을 넘어선 태평천하를 찍었어요. 지금은 그사람과 상황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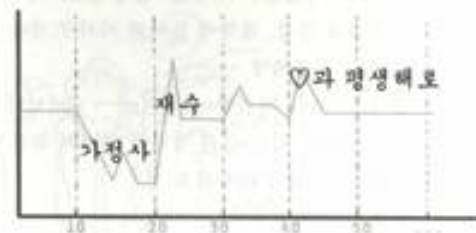
람다> 아, 너 키워드가 찢이요?

박하> 사랑이야.

나나> 아이구 ~~ 소니들네

람다> 사랑이라니 오글오글하게 들리지만, 내가 어떤 정체성의 이름으로 불리느냐도 결국 감정, 사랑, 관계맺음을 누구와 나누느냐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타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결국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거고. 특히 내가 여자를 사랑함으로써 갖게되는 그 소수자로서의 정체성과 시각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행동하는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

람다



엄마 저예요,

갑자기 편지라니 조금 부끄럽네요 호호.. 편지는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 쓰는 것 같네요.. 어쩌면 좀 갑작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고민 끝에 결국 갑작스럽지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요즘 주말에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꼭꼭 챙겨보시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고 보신다는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조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제 남자친구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그 동안 미처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사람은, 남자친구도 아니고 그 때 말씀 드렸던 이름도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저랑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저랑은 다른 과이지만, 작년에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고백했고, 지금은 사귀는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지금도 정말 잘 지내고 있고, 그 사람이 정말로 좋아요.

매일 혹시 이미 눈치채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했어요. 엄마의 모든 대화나 행동에 예민해지고 모든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저에 대해 아시고 하시는 걸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을 졸여왔어요.. 만약 알고 계시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계시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혹시라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든 게 걱정뿐이었

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사귀고 있는 사실도 처음에는 비밀로 할 예정이었지만, 먼저 눈치를 채시는 바람에 남자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이름도 그 자리에서 지어낼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여자라는 사실만은 절대 말하지 말겠다는 생각 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시거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보실 때마다 피하거나 거짓말로 대답하면 할수록 괜히 눈치만 보게 되고 불안했어요. 점점 더 엄마에게 숨기는 게 많아질 것 같고, 평생 엄마를 속이면서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어요. 엄마는 절 있는 그대로 사랑하실거라 믿으니까요. 일단은 직접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글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아마 이 글을 보시고 많이 놀라실지도 모르고, 어쩌면 짐작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나쁜 결정이 아니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언젠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음, 그리고 아버께서는 아직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요. 아직은 엄마만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럼 저녁에 집에서 뵈게요.

- 계속 엄마의 자람이
되고픈 큰딸

하레

답: 원래 이 인터뷰는 20대 레즈비언 취업준비생을 인터뷰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국 내에선 인터뷰 대상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물론 실제 주위에 많고 많은 분들이 20대 레즈비언 취업준비생(취업준비생)인 경우가 있었습디만, 유명인사들 중에서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메리(메리대구 공방전에 나왔던)씨에게 찾아가 당신 사실은 레즈비언 아니냐며! 추궁해 보았지만 실패로 돌아가서 결국 저 먼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Max씨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맥스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웰로우 - 미스터 맥스?

1 word of Max의 인터뷰 후기



취업 업업

맥스: 오우, 안녕하세요.

답: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맥스씨의 프로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맥스, FTM*으로 정체화하기 이전에는 모이라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the 1 word 서른 3에서 제니와의 만남을 통해 세상에 그 존재를 알리셨고, 그 이후에는 '웨인 대신 왕부처의 자리를 꿰차는 것이 아닌가?!' 라며 많은 레즈비언

*FTM(Female To/Toward Male)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하는 이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여성으로 자신을 정체화 하고 다른 여성에게 애정을 느끼는 레즈비언과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FTM이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맥락과 사용하는 시점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사용된다. 이 인터뷰에서는 트랜스섹슈얼로서의 FTM 뿐만 아니라 트랜스 젠더의 범위까지 모두 포함하며, 특히 FTM은 비성전환 남성과는 다른 경험이 있는 남성들*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언니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으나 FTM으로 정체화하여 맥스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파란 만장한 인생을 걸어온 맥스씨, 그 중에 오늘의 인터뷰 주제에 맞게 취업이야기를 한번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볼까요?

한국 내에서 요즘 20대의 취업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맥스: 네, 한국 내에서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심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죠. 특히 부지분들은 꽤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도 모이라로 취업준비 할 때는 대략 실력에 상관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되었던 경험이 있지요. 게다가 저는 남성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컴퓨터 관련 직종에 취업하려한다 외모가 그들 눈에는 다소 튀어난 관계로 더욱 차별을 받았었지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맥스로 취업준비를 하니 실력이 좋다며 덜커덕 좋은 자리에 취업되지 않았습니까?

답: 와.. 맥스씨 갑자기 매우 감동받았어요! 맞아요, 맥스씨 모이라가 아닌 맥스로 구직 활동을 하자마자 좋은 자리에 취업되었고 실력도 인정받으셨을 때 괜들도 기쁘면서도 이런 구질구질한 현실에 심사가 꼬였을 것 같아요. 혹여 잘 모를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좀 자세히 취직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맥스: 크하하! 제가 좀 감동합니다. 어휴, 제 이야기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 이거이거.. 적잖이 실망입니다?

어려운 제가 모이라로 취업준비 할 때는 말입니다 머리로 남자처럼 짧고 옷도 남성복을 주로 입어왔었기 때문에 면접을 하러간다고 할 때 참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요. 평생 입어보지도 않았던 정장 치마와 블라우스를 구매하려하니 뭘 사야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결국 좀 여성스럽다는 친구들을 끌고 가서 억지로 하나 사고, 그렇게 억지로 산 정장 치마와 블라우스를 입고 처음 신어보는 구두 때문에 발이 터질 것만 같은 고통을 참으며 면접을 갔습니다. 아 그런데 면접에서 면접관이 정말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더군요!

답: 무슨 말을 하던가요?

맥스: '자네 운동권 출신인가?'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까! 제 이력에 성폭력 관련 활동이 있긴 했지만 웬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만약 제가

머리도 칼랑칼랑 기르고 화장도 하고 갔더라면 그렇게까지 확신에 찬 어조로 운동권 출신이 아니냐며 물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람다: 아하, 그런 일들 때문에 모이라 시절에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던 것이로군요. 그러다가 맥스로 성전환 절차를 밟게 되었을 때부터는 어떤 경험을 하셨지요?

맥스: 제가 모이라라는 이름을 버리고 맥스로 거듭났을 때 (거듭났다는 말이 맞는거? 이것 참 헷갈리는 구마잉..) 면접관들의 태도가 확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쇼. 당연히 남자다! 라고 생각했는지 저의 외모에 신경 쓰기보다는 저의 그 직장과 관련된 이력을 열심히 보면서 능력 위주의 질문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실력이 무척 좋은 것 같다며 환영하는 그 모습이란.. 면접관들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취직을 하긴 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람다: 그래도 능력도 인정받으시고 일도 잘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으니 일에 열심히 하시지 않았셨나요?

맥스: 그렇지요. 한 동안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느껴져 열심히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성격에 정체성을 숨기고 일을 하거나, 사랑을 하기는 참으로 힘든 일인 것 같더군요. 그래서 결국 직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했을 때 이성애자인척 해야 하거나, 여성인척 해야 하는 상황에 심사가 매번 꼬이는 일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겠지요. 저처럼 돈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좋은.. ***

람다: 앗 잠깐, 어느새 시간이 다 되었군요! 뭔가 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20대 레즈비언 취준생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과도한 악플도 저를 잘리게만 하지 않으시면 정말 감사할거예요. 아하하 그럼 맥스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마지막이니 좀 멋진 말 부탁드려요)

맥스: 난 어떤 면에선 남자보다 더 남자답죠!

람다: 자, 잠깐만요; 대략 또 별 상관없는 말씀을..

맥스: (아마.. 좀 조용히 좀 해보소!) 내겐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자로서 살아가지

만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거나 나오는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확실히 여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전 '여자'들과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들은 여자도 태어났을 수도 있고 여자도 자신을 정체화한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일련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전 제가 그리는 밑그림들이 유동적이길, 언제나 변화하는 것이길 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창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련 자세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지만, 앞으로 구직 기간 동안 그리고 막 취업을 했을 때 온갖 구질구질한 사회적 편견에 맞서야할 20대 레즈비언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요. 20대 레즈비언 취준생 여러분들도 충분히 창조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음하하!



람다: 와.. 어떤지 별 상관없는 말을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습니다만.. 나를 멋진 걸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모실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고록 하겠습니다. 맥스씨 그럼 저희 변남 문화제 먼 미국 땅에서도 잘 파주시길 바라면서.. 안녕히!

맥스: 어허.. 뭐 이런 허접한 인터뷰가.. 호통 좀 치고 싶지만 전 이제 비행기 시간이 다 되어서 가봐야겠군요. 그럼 안녕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의 살인 미소를 독자들에게.. 후후~

람다: (저 인간이 끝까지 제방정을..-_-) 그럼 지금까지 인터뷰를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사라집니다. 언니를 안녕히!



그냥 평범한 이야기

by 코믹

-이모! 이모는 얘기 안 만들어요? 만들어줘요.

유난히 귀여워라 하는 조카 녀석이 내 다리를 안더니 놓지 않고 계속 때달린다.

-성민, 너도 사촌동생 갖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하지? 이모는 머리가 짧아서 얘기 못 만들어주는데...

한바탕 물놀이를 하고 난 뒤라 젖은 옷으로 때달려서 이리저리 흔들며 떼어 내고 물가로 다시 보냈다.

-너 진짜 얘기 낱을 생각 없는 거지? 만들면 안 되는 거 알지? 결혼도 안했는데 거기에 애까지 생기면 우리가 그거 정말 감당 못한다.

언니는 또 넘겨줬었다. 유난히 아기를 좋아하는 나를 보고 하는 말이었다.

'아니.... 아기는 갖고 싶어.'

15년 전 내가 언니에게 커밍아웃 했을 때 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양성애자라며 죽어도 결혼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미 결혼할 사람과 2년 넘게 교제 해오던 언니에게 결혼은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다고 조금 지치면 들어가는 안식처 같은 것 말이다.

-나도 죽어도 결혼 안 해."

-너 내가 보기에 양성애자야! 노력 해봐. 노력도 안하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어?

-나도 노력했다고.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2년, 그거면 충분히 참은거 아니야?

-난 니가 좋은 길을 가길 원하는 거야. 그래서 노력해보라는 거고, 너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거 같아?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하고,

-나도 엄마, 아빠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더 잘 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됐어. 난 나의 로망을 깨뜨렸어.

결혼시키려는 의도는 물론였다. 언니의 로망이었다. 우리 자매들끼리 동반 부부 여행을 다니고 아기도 서로 돌봐주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 말이다. 남 보기에 그림은 좋을지도 모른다. 나도 한때는 상상했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건 금방이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그림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아직도 나 결혼했으면 좋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큰언니랑 나랑 남편들 데리고 이렇게 놀러 왔을 때 너도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나?

-그럼 나도 데려올까?

-누굴...? 뭐장결혼이라도 하게?

-아니.... 그냥 뭐....

또 이렇게 아무 말도 못했다. 그냥 포도알만 찹질해 몇 개씩 씹어 넘겨버렸다.

-처제! 찹질은 빼고 알맹이만 먹어. 아... 처제는 남자친구 안 만들어? 처제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진짜 여기 같이 놀러오고 그러면 좋잖아.

작은 형부는 큰 형부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던 것처럼 저 멀리 있다가 음식이 있는 이곳으로 왔다.

-뭐예요? 큰형부랑 뭐 제 결혼시키기 그런 계획이라도 짜고 오시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처제가 남자 친구 생기면 진짜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안 부러워?

-부럽네요.. 많이 부럽네요...

-처제가 아직 연애향함이 없어서 그러는데 정말 처제를 챙겨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지금 처제가 하는 일을 그만 두고 싶을 정도로 좋아질 거야.

-됐어요. 이제 저한테 남자친구 애긴 꺼내지도 마요. 저도 이제 짜증날 것 같아요!

-너 형부한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 형부는 너 좋으라고 얘기 하는 거잖아.

-언니는 다 알면서 형부를 감싸? 언니가 나 좀 이해해주면 안돼? 이런 상황에 있을 때마다 힘들다고.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그럼 니가 그런 상황을 안 만들면 되는 거였잖아. 너 혼자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빠가 너 편히 결혼 하는 거 보고 싶어 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너 살고 싶은 대로 맘대로 사는 거 보면 짜증난다고.

-알겠어. 내가 가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 거잖아. 누군 결혼하기 싫어서 안하는 줄 알아? 나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아이도 갖고 싶고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온지도 모른 채 그곳을 빠져 나왔다.



변 날 일 보

2010년 10월 4일 월요일 제8호

<http://blog.naver.com/ewhabyunnal>

아웃팅 당한 동성애자,



지난 달, 김미희 (34, 가명)씨는 3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아웃팅으로 인한 권고퇴직. 이것이 김미희 씨가 어렵사리 구한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자가 된 이유이다. 김미희 씨는 동성애인과 5년간 교제중이다. 그러다가 김미희 씨가 동성애자인 것을 눈치챈 직장 동료들이 그것을 회사에 소문을 내었고 그 소문이 결국 직장 상사의 귀에 들어가 권고퇴직을 당한 것이다.

김미희 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지갑 속에 있는 애인의 사진을 본 직장동료가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며 몇 달 동안 심증과 물증을 굳혀가면서 회사 동료들에게 가십거리로 소문을 낸 것 같다고 추측하였다. 또한 이 소문을 들은 상사는 '우리 회사가 규모가 큰 회사도 아니고 작은 회사라 팀원들 간의 팀웍이 중요하다. 미희 씨가 있으면 다른 사원들이 불편해 하거나 팀웍이 망가질 수 있다'며 퇴직하기를 권고했다고 한다.

이처럼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아웃팅을 당했을 때 권고퇴직이나 타인들의 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자신의 성적체성을 원치 않게 폭로당하여 심적으로 고통을 겪는 것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의 생계에 대한 위협마저 느껴야 한다.

성정체성을 이유로 해고 당해

만일 지난 2007년 제정 과정에서 무산되었던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 항목이 통과되었다면 회사의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무효화 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김미희 씨와 같이 부당한 처우를 받은 동성애자들은 제도적으로 유효한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으며 보상도 요구할 수 없다. 이렇듯 약자의 위치에 놓인 동성애자들. 그 인권과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나나 기자 ewhabyunnal@naver.com

© 변태소녀하늘을날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환영

본 기사는 실제 일어난 일을 각색한 것으로, 기사에 등장한 실재의 인물이나 단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Outing :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체성을 자의로 타인에게 고백하는 것 (coming out: 벽장에서 나오다/coming out of closet)이 아닌, 타인에 의해 원치 않게 성적체성이 알려지는 것 (누군가를 벽장에서 끄집어 내다/taking someone out of closet)

차별금지법 : 헌법의 평등이념 아래에 성별,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가지고 일어나는 차별을 금지하고 그러한 차별로 인해 일어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만든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 그러나 이후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등 7가지 항목이 삭제되어 그러한 7가지 조항에 포함된 소수자들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그들이 받은 차별을 시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게 됨.

수술하려면 남자 남편 을 데려와라?

아이슬란드 동성 총리 부부 탄생, 한국은 언제쯤 가능할까



지난 6월 27일 아이슬란드에서 동성 총리 부부가 탄생했다.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인 아이슬란드 총리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총리(68)가 동성 배우자이자 작가 요니나 레오스도티르와 합법적으로 아이슬란드에서 결혼한 것이다.

아이슬란드는 6월 12일 결혼을 '성(性)에 상관없이 두 성인의 합의에 따른 결합'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 시민결합, 시민연대, 생활 동반자 등의 이름으로 동성간의 파트너십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는 나라는 20여 개국에 달하며, 네덜란드·벨기에·캐나다·스페인·포르투갈·노르웨이·스웨덴·아이슬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아르헨티나 등 10 개국이다.

한국, 남녀라는 규정은 없지만 실제로는 이성애 결혼만

한국의 혼인에 대한 법적 규정은 이렇다. 민법은 혼인과 관련하여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달한 때 혼인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굳이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혼인의 효과를 기술함에 있어서 여러 곳에서 부부(夫婦)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혼인이 이성혼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4년 게이 동성 커플이 결혼식을 한 후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라고 하여 무효라고 혼인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동성혼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동성혼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도 있다.

동성간 결합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국에서 동성간 커플은 다양한 차별 상황에 놓여 있다. 가족의 기능이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 혈연 공동체 등 다양한 공동체적 기능을 갖고 있다면 동성간 커플은 결합 시 이러한 기능에 대해 스스로 포기하거나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간다.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관계를 케트리길 원치 않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을 통해 자신이 얻는 행복을 다른 어느 것이 대신할 수 없어서이다.

■성적 소수자가 겪는 제도적 차별 유형

재산권 행사 제한

- 파트너 사망에 따른 상속권 불가
- 파트너와 결합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불인정

사회보장 불이익

- 파트너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상속 불가
- 각종 거점수당 수취 불가
- 파트너 경조사에 따른 휴가신청 불인정

기타

- 위급시 의료 결정권 행사 불가
- 레즈비언 커플의 경우 대를 제한

결혼 제도에서 근본적으로 소외된 동성 커플은 표면적으로 각각의 독신 가정으로 취급되어 이성애 결혼을 중심으로 짜여진 모든 경제적·법·제도적 보장에서 배제된다.

첫째로는 재산권이다. 파트너의 사망에 따른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성간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이 사망할 시 재산의 50%는 부인에게 상속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시 재산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성 커플 중 한쪽 배우자 사망 시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 등의 보장도 받을 수 없다. 경제 공동체적 기능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족의 현실은 항상 불안한 미래를 안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동성 커플은 동거 관계를 시작한 시기, 그리고 관계 해소 후 시기에 재산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해야 하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

다음은 주거와 관련한 문제다. 현재 장기임대주택에 있어서 동성 커플은 이미 '보이지 않는' 관계이다. 서류상에 부양자가 없는 경우(단독세대주)나 혼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 임대 주택에서 항상 우선순위에 밀리므로 장기 주택이 아닌 일반 월세 주택을 택할 경우, 줄일 수 있는 생활비를 더 쓰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의료결정권이다. 동성 커플의 배우자는 임원과 수술 여부의 동의, 치료 과정에

대한 결정, 면회 자격, 입원시 면회할 권리, 사망 확인 등 모든 의료과정에서 보호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현재 혼인 등록을 한 배우자나 혈연 가족만이 가능하다. 병원마다 경우가 다를 수 있으나, 남성 간의 배우자 관계나 여성 간의 배우자 관계라고 표현한다 하더라도 병원 내에서 이에 대한 준비도 없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존각을 다루는 응급 상황에서 위급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 사례에 의하면 레즈비언 커플의 한 배우자가 급한 수술이 필요했으나 가족 이상의 사이라고 표현해도 병원은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전했다. 100만 원 가량의 보증금을 내야 입원 동의서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친한 게이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그가 남편인 것처럼 말을 해서 입원하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한다.

독신자 가능한 입양... 왜 동성 커플은 안 되나

고용 과정에서 '왜 결혼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쏟아진다. 이런 질문들을 피해 다행히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해도 근무 상에 있어 기혼과는 다른 처지에 놓인다. 경조사 적용 범위, 육아 휴직 등 기혼자들이 적용 받는 혜택을 동성 커플들은 누릴 수 없고, 부양 가족이 없는 좀 더 자유로운 미혼이나 독신으로 오해 받아 근무 시간상의 불리한 배치, 연장 근무 등이 할당되기 쉽고, 승진 대상에 밀려나거나 양보를 요구 받는다.

이외에도 입양 문제, 사회보장, 연금, 보험 수혜권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성 커플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법적으로는 독신자 입양도 가능하나 입양기관에 '결혼가족'이 아니면 관례상으로 입양을 거부하고 있다. 의료보험, 가족 건강 연금 및 보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 국민연금의 상속, 가족수당의 수급, 경조사 부조 및 휴가 신청 등이 불가능하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

동성 커플은 혈연, 경제, 운명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필요하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을 통해

더욱 강력히 주장할 수 있다. 그 형태는 동성 결혼, 동성 간 파트너십(동반자) 관계 등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다. 앞에서 나열한 제도적 차별을 감내하고서라도 동성 커플이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가족을 구성할 수 없어서 겪는 상대적 박탈감보다, 동반자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얻는 삶의 행복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이종걸님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팀장입니다. 위 기사는 이은우 <동성혼과 가족제도, 2006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자료집>,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집-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등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출처 : 수술하려면 '남자 남편'을 데려오세요? 오마이뉴스 2010.7.9 정리 박하

영화 <If these walls could talk 2> 중
평생을 함께 지낸 할머니 레즈비언 커플은,



"면회 시간 후에는 가족만 되니까 내일 오세요"
"...친구예요, 아주 친한 친구죠"
"가족은 없으세요?"



"집주인은 고모님이셨군요"
"형의만 그 친구 이름이지 빗은 같이 갔었어요"
"집을 팔때니 전세집을 찾으시는게 좋겠군요"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어디로 가라는거죠?"
"가족은 없으세요?"



"동성 커플의 자녀들은 행복하고 당당한
엄마들과 아빠들을 사랑하고, 또 그런 엄마들과
아빠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할 뿐이다. ... 변화되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이지 동성애자 엄마들과 아빠들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동성 커플의 자녀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

by 박하



두 엄마, 그리고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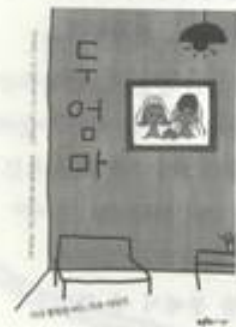
소설 <두 엄마>는 스페인의 한 레즈비언 부부의 딸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앞두고 자신과 가족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인 소설이다. 소설의 화자이자 저자 자신이기도 한 사라는 커밍아웃한 후 아버지와 헤어진 어머니, 어머니의 동성 배우자 그리고 두 어머니가 입양한 자매들과 함께 살고 있다. 2005년 스페인에서는 동성 결혼 합법화와 동성 부부의 입양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호도들이 있었고, 저자는 이에 분노를 느껴 이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쉽고 가벼운 일기처럼 씌어진 소설이지만 그 무게는 만만치 않다. 저자는 힘주어 말한다. 자신의 삶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이는 레즈비언인 두 엄마와 살아가서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이었다고.

중요한 것은, 사랑

실제로 소아학회 연구는 27만 명의 동성부부 입양 자녀가 존재하는 미국에서 (2005년 기준), '부모의 성적 지향성은 자녀들의 감정적, 심리학적, 행동적응력에 있어서 아무 관계가 없으며 부모의 성별과 관계없이 아이를 사랑하며 잘 양육한다면 누구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또한 오히려 레즈비언 부부의 경우 이성애자 부부보다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커뮤니케이션이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물론 이러한 과학적인 증거들 굳이 들이댈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우리 모두는 특정한 가족 형태가 구성원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저마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고 있을 것이다.

당신의 가족, 행복하십니까?

"머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뭘말이나"를 외치며 동성애는 '정상가족'을 붕괴시킨다고 주장하는 어떤 집단이 있었다. 스테레오타입화된 가족 이미지만 보고 듣고 말하는 한국 사회에서 나름의 삶을 꾸려나가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구성원들 -실제 통계적으로도 그 비율이 만만치 않은데도-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마치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누가 누구에게 정상/비정상의 이분법을 붙이며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가? 한부모 가족, 동성커플 가족, 독신자, 입양 및 공동체 가족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은 비정상이며 불행한가? 아빠와 엄마와 자녀로 구성된 이성애 혈연 가족은 '정상'이며 행복한가? 사실 완벽하게 행복한 가족은 없다. 어떤 가족 구성원이든 때로는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의지하고 노력하며 최대한의 행복에 수렴해 가는 중에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 엄마>의 부제인 "'거의' 행복한 어느 가족 이야기"



무리얼 비아누에라 페리코나루 지

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작가는 특정한 가족 형태가 정답이나 규범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사랑 안에서 조화로움을 찾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가 다양한 가족 형태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과 서로의 행복을 위해가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천천히, 그러나 마땅히

아직 성정제성에 대한 차별금지법조차도 표류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동성 부부의 결혼권과 자녀양육권에 대한 이야기는 요원해 보이는 주제이다. 하지만 이야기의 무대인 스페인 역시 1970년대까지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사회위험법'이 존재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 철폐와 인권 확대는 부인할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영미권과 유럽권 역시 인권운동과 이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몇 십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권리- 이는 어떤 사람은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고 어떤 사람은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사회적 보장이다. 천천히 그러나 마땅히, 한국 사회 역시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50대 레즈비언 '도썸' 님과의 인터뷰

by 하루



소개를 받아 인터뷰를 하게 된 도썸님은 직접 만나기 전까지, 짧은 통화 한 번 밖에 해보지 못한 상태였다. 그 때문에 30년 이상의 인연을 이어온 동성 배우자가 있는 50대의 레즈비언이라는 정보에 막연히 상상하는 도썸씨의 모습은 잘 차려 입고 출근하는 모습의 커리어 우먼도 아닌, 그렇다고 남편과 자녀의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가정 주부의 모습도 아닌, 그저

물음표 그 자체였다. 이 얼마나 빈약한 상상력인지. 나는 레즈비언이라고 (속으로만) 외치면서도 정작 내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를 중년의 레즈비언에 대해선 아무런 지식도, 알아야 한다는 자각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인터뷰 장소에 나타난 도썸님은 세련된 스타일에 30대로 착각할만한 동안, 거기다 우아한 목소리까지- 멋진 커리어우먼의 모습이였다. 첫 인터뷰라 제대로 된 질문도 던지지 못했던 덕에 인터뷰는 도썸님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현재 어떻게 지내시는지, 요즘 생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주세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노후설계에 대해 관심이 많아 공부를 하고 있고, 직업은 전문직이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Q 지금의 저희와 살아온 시대상이 전혀 다를 텐데,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해요.

A (30년 동안 함께 한) 지금의 애인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친구에게 별 감정이 없었는데 1년 후부터는, 그 친구가 제나 신경 쓰었어요. 친구는 친구인데 감정이 달았다고 해야 하나. 어렵고, 조심스럽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지내고 대학에 들어가 어느 순간 그 친구를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고, 방학 내내 그 친구에 대한 감정 때문에 꿈쩍도 못하고 꿈꿨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대체 이 친구한테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누군가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 이 친구를 내게 보낸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 때가 79년도 박정희 군부 독재 시대였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암울하고 어려웠고 동성애 이런 걸 입에 올릴 수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몰랐던 시대였기 때문에 둘의 관계를 확인하게 된 건 82년도가 되어서야 있어요. 전혀 지식이 없던 이 쪽 커뮤니티에 대해 알게 된 건 동성애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했을 때예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었고 그 곳에 들어 가면서 눈을 뜨게 됐죠. 사연도 읽고 우리 얘기도 쓰고 커뮤니티 안에서 친구 관계를 맺기도 했고, 물론 우리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었지만 그 친구들 보면서 우리 관계를 짚어보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했고, 상담도 해줬고,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 커뮤니티를 알게 됐던 게 동성애가 무엇인지에 대해 깨달음을 주기도 하면서 우리 관계를 알고, 더 전고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커밍 아웃은 하신 상태인가요?

A 아니요. 친구나 부모님 누구에게도 한 적 없어요.

Q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결혼 이야기가 계속 나오진 않았나요?

A 저는 형제자매가 많아서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결혼 하지 않은 순위형제도 있고요. 애인은 저와 반대로 결혼에 대한 압박이 아주 심한 편이었어요. 직장 생활할 때, 어머니가 옷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다가 끝나면 갈아입힌 다음 선을 보게 하기도 하고.. 저와 달리 애인은 외동말이었거든요.

Q 이후 동성간 결혼이 허용된다면 결혼을 하실 생각인가요?

A 사실 결혼에 대해서는 애인과 나 둘 다 딱히 생각은 없어요. 결혼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아요. 굳이 결혼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Q 결혼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A 나도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는 왜 결혼 생각을 안 했을까. 성격적인 변도 있고, 이미 우리는 젊을 때 '우리는 레즈비언이니까, 약자니까 미래를 설계해야 돼, 우리 삶을 끌어가야 돼.'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성정체성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배경도, 지식도, 깨달음도 없었기에 우리가 과연 레즈비언인가 하는 의문도 항상 품고 있었기 때문에 동거는 생각도 못했죠. 20대나 30대 초반에 동거를 시작해서 생활 패턴이 어느 정도 맞춰졌더라면 결혼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Q 사실 직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중년의 나이에 비혼이시다 보니까 차별을 받거나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A 결혼 직종에 종사하다 보니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더군다나 나는 사회활동을 활동적으로 하는 편도 아니었고, 직장생활을 몇 십 년 꾸준히 하지도 않았거든요. 개인 사업을 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사회구조 안에서 어떤 불평등함이나 불편함을 느끼기엔 내 생활 자체가 조금 동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Q 미국 드라마 <The L Word>는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모여 사는 지역 이야기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한국에도 동성애자들의 지역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A 이 질문에 상당히 흥미가 가네요. 정말 능력이 된다면 이런 마을을 짓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Q 마지막으로 대학생 레즈비언들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A 요즘 젊은이들, 부와 가난이 되물림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서 다들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는 소수자라는 어떤 지위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는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치열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았던 유형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아주 잘한 일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실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대가 가족이든 친구든 간에 관계를 성실하게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내용으로 쓸 만 한게 별로 없죠?' 인터뷰가 끝나갈 즈음 도법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아마도 미리 준비했던 질문들 중 '~하셨죠?' 라는 뉘앙스로 당연히 그러할 것을 염두에 두고 물었던 것에 '아니요' 하고 답변하셨던 것이 마음에 걸리셨던 듯했다. 그 순간 인터뷰의 대상을 단순히 50대, 여성, 비혼 그리고 레즈비언이라는 조합으로 편협하게 생각해 만들어냈던 질문들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이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삶의 모습과 다양성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도법님께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다.

안녕, 화면아. 잘 자고 있니? 저번에 감기가 심하게 걸린 거 같던데 감기는 다 나았는지 모르겠다. 오늘 우리 첫째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어. 다행히 회사 휴가랑 시간이 맞아서 입학식에 다녀왔는데 세상에 이런 우연도 있는지, 내가 졸업한 그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벌써 우리 애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생각이 드니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우리가 선후배 관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니 묘한 기분도 들고, 오랜만에 본 모교 건물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더라.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 내가 처음으로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처음으로 장난이 아닌 나름대로 절절한 연애를 했던 때가. 첫째 손을 잡고 운동장과 불산, 그리고 학교 건물을 돌아보니 여기저기 그 아이랑 함께 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더라. 내가 타인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것도, 행복한 것도 처음이었는데.

열병처럼 첫 연애가 지나고, 대학교 졸업 때부터 나 결혼하기 전까지 만났던 애인 생각이 나면서 기분이 추해질 수 없이 복잡해졌어. 나는 그 사람과 평생을 같이하고 싶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었어.

엄마의 편지

나나

하지만 내가 30대가 되고, 흔히 말하는 결혼 적령기가 지나자 가족들의 성화가 심해졌지. 너도 그 때 내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날 거야. 내 경제성을 알면서도 어쩔 그렇게 엄마 가슴에 못을 박나고 손주들 엄마 품에 안겨주지 않을 거냐고 내 방에서 통곡하던 엄마. 왜 결혼 안하냐고 추궁하고 선을 주선해주던 직장 동료들.. 난 그 때 너무 무서웠어. 평생 나만을 위해 산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아 무서웠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애인과의 이 관계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 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게 이렇게 뼈에 사무치게 느껴졌던 적이 없었던 거 같아.
그리고 나는 선으로 남편을 만났고, 짧은 연애기간을 갖고 결혼을 했다.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남편과 결혼을 한 건 아니야. 남편은 충분히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아버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애인에게 선을 뺏고 곧 결혼할 수도 있으니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 내가 평생 그렇게 사랑한 사람도 지금까지 통틀어서 그 사람 단 한명이었고 그 사람이 없는 나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 지금도 눈을 감으면 눈물 범벅이 된 애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해.. 그 뒤론 연락이 끊겼는데, 잘 살고 있을 지 모르겠다.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화연아,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해. 지금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두 아이가 있는 이 삶을 좋아하고 만족하긴 하지만 그 때 좀 더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아무리 가족이 나를 질타하고 사회가 나를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그 사람과의 미래를 놓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럼 나는 더 행복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불행했 느끼지는 이 이진함과 후회가 느껴지는 그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을까?

있지, 나는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어떻게 보면 나는 남편에게 레즈비언인 나의 정체성을 속이고 남편을 도피처로 이용한 것은 아닐까? 나는.. 남편 평생을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성애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그냥, 오랜만에 내가 어렸을 때 다니던 학교를 보고 오니 기분이 너무 싱숭생숭해졌나봐. 정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든다. 어수선하고 긴 편지, 읽어줘서 고마워.
조만간 다시 전화할게. 감기 조심하고 이만 줄일게.

떠나면서 남기는 글, 회고록

나는 이제 레즈비언이라는 이름을 벗어던진다. 오랜 시간 나는 레즈비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왔고 그 이름을 자랑스러워 할 때도, 수치스러워 할 때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하기에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지금 이 글을 읽는 내 오랜 친구들, 그리고 나와 유사한 미래를 걸을 젊은 친구들에게 한마디 말만 전하려한다. 내가 처음 어머니에게 반 강제적 커밍아웃을 했을 때 어머니는 나에게 물었다. “너 언제부터 레즈비언이었던 거야?” 그 물음에 나는 제대로 답할 수 없었다. 처음 같은 반 여자 친구를 좋아하게 된 중학교 때부터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럼 이성애자들은 처음 남자를 좋아하게 된 순간부터 이성애자가 되는 건가? 수많은 생각만이 머릿 속을徘徊할 뿐이었다.

“어쩌다가 (혹은 언제부터) 레즈비언 (여성, 장애인, 동성 주변인이라 불리는 모든 명칭들)이 되었는가?”

내가 대학생이 되고 머리에 먹물 좀 들인 이후에 알게 되었지만, 사실 레즈비언들 사이에서는 어쩌다가 레즈비언이 되었냐고 묻는 것은 그러면 당신은 어쩌다가 이성애자가 되었냐고 되물어질 수 있을 만큼 질문한 사람이 스스로 일종의 무지함을 증명하는 물음처럼 여겨져 왔다. < 그러나 나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우리가 서있는 ‘지금-여기’ 에서 나 자신을 구성하는 소수자적 삶의 역사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다가 레즈비언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이 중요한 것이라.

나라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여전히 나에게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성별 구분부터 나이, 출신학교, 또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악 취향을 지녔는지 등을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의 레즈비언사를 알고 싶어 하는 질문들은 나에게 언제부터 힙합을 좋아하게 되었느냐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들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도 어쩌다가 레즈비언이 되었느냐 물음이 나를 알기위해 나의 음악 취향을 묻는 것과 같이 그저 나라는 인간 자체를 알고 싶어 묻는 물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바깥은 '지금-여기'의 상황을 본다면 먼저 지극히 정치적인 질문이 먼저 선행될 때 (그나마) 실현 가능한 것이라 여겨진다.

'지금-여기'의 상황은 너무나 명백하다. 남성과 여성을 나누듯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나눈다. 또한 그 나눔의 경계는 단지 칼슘과 칼륨을 나누려는 평행선의 경계가 아니라 정상이라는 중심의 가치와 비정상이라는 주변의 가치로 나누려는 수직선의 경계이다. 그렇기에 지극히 정치적인 질문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쩌다가 레즈비언이 되었는가?"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상징을 내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순간 나의 개인적인 삶은 개인적인 동시에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레즈비언이라는 명칭을 내 몸에 다는 순간부터 **나는 매 순간 주변인의 위치에 서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레즈비언사를 나의 음악 취향사 소개와 똑같은 위치에서 '나'라는 인간 자체를 소개하기 위한 소재로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점점 나의 파트너를 '남자애인'으로 둔갑시키는 것에 능숙해져갔다. 내 파트너는 이화여대가 아닌 연대를 졸업한 사람으로, 키는 10cm쯤 늘려서 171cm, 남자치고는 좀 작은 키지만 내 키가 작으니까 나는 좋다. 등등..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이성애자인 척하기'를 택하는 성소수자들이나 자신 말고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생존 전략을 선택하면서도 나는 나와 수많은 이들의 레즈비언사 위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편견, 우리 스스로도 눈치 채기 힘든 이성애적 인식의 굴레 등의 표식들을 눈치 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고 그러기 위해 무진 애를 써왔다. 그렇기에 나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해온 사람들이라면 "어쩌다가 레즈비언(주변인이라는 딱지가 붙은 모든 명칭들 혹은 이성애자도 좋다!)이 되었는가?"라고 자문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또한 그 질문 속에는 스스로 '레즈비언'이라는 명칭 속에 묶어 어찌든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를 우리 '모두'의 공통된 '레즈비언성'을 구현해보이려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심찰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지금까지 이성애 중심의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바,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보이는 이성애 중심의 숨 막히는 구조에서 벗어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함께 사는 파트너가 있음에도 결혼 제도가 보장하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등등,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왔던 지원들은 나를 한때 이성애 중심적인 구조 속에 안착하여 그저 그런 '위장된' 삶을 살도록 충분한 격도 있을 정도로 위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재고를 자문해보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숨 막히는 구조에도 자그마한 숨구멍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믿으며 그 구멍을 통해 숨을 쉬려는 자들이 늘어날 때 종국에 어떠한 구조의 균열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주위에서 들려오는 "왜 어째 결혼을 안 하느냐, 나이는 먹을 만큼 먹어서 왜 아직도 애들 같은(남자 같은) 옷만 입고 다니느냐" 등등의 의구심 섞인 질문들 속에서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파트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준 우리 B공동체에 대한 경험에서 오는 믿음일 것이다. 중년에 이른 레즈비언들끼리 의기투합하여 만든 B공동체, 내외로 많은 시련과 다름도 있었지만 (이성애 보이는) 여자들만 사는 공동 주택에 묘한 눈길을 보내던 사람들과 사회에 당당해 질 수 있도록 해준 B공동체에 무한 애정을 표한다. '마로, 또 같이'이었기에 가능한 삶이 아니었을까!

이렇듯 제도적 한계,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나는 나의 **인생에 후회를 느끼지는 않는다.** 내가 그러하듯듯이 '레즈비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갈 많은 친구들도 스스로들의 역사를 교환하고 많은 소통을 이뤄낼 수 있는 다양하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 끝으로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환희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수십 년을 함께 해 준 나의 파트너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느끼면서 이만 글을 줄이려 한다.

2012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무서운 소문—이라 칭하는 걸 보면 필자는 분명
종말론에 무심한 사람입니다—을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정말
기대하는 것은 종말이 아니라 그 뒤에 다가올 ‘새 세계’라고. 직접 지은 세에 동물들
한 쌍씩을 태우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을 겪은 뒤 노아가 희망의 무지개를 봤던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뒤에 다시 펼쳐질 새 세계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2012년의 종말 이후에 다가올 세계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2012
년 이전의 세계까지의 것들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당신의 세상 안에서 당신 자신만의
시각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한 줄 남김없이 사라지고 ‘없음의 有’—이것을 무라
칭할 수는 없겠죠—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그 오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볼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2062년 종말론

2012년까지의 종말 이전의 세계는

참 싸움하기를
좋아하던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하고 덤벼들던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신을 믿는지, 어떤 피부색을 가졌는지, 어떤 성으로
태어났는지, 어떤 나라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는지 등은, 나와 당신과 그들을
사랑하기 위한이 아닌 혐오하기 위한 잣대가 되어 왔습니다. 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보다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고, 싫어하는 대상이 같을 때에야
비로소 동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얼마나 순백색이었는데 그 어떤
이데올로기조차 단 한 번의 꽃질을 통해서도 그 길은 색깔로 모두를 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일성과 같은 이데올로기, 그로 인한 싸움과 고통에 대해서
일이 일기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성이라곤 단 한 점의

잉크로도 남아있지 않은 대한민국에 대해 비판하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 사람들 역시
비판하는 대상이 같다는 이유로 동지가 되고 그 비판은 다시 비판을 낳는, 종말 이전의
대한민국은 이 아픈 병을 계속 앓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데올로기가 있어지면 더
이상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비판과 비난은 서로를 미워하고
등을 돌리고 있지만 그들의 등 사이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비판은 결국 더 좋은 결과를 위한
것이라는 정당성은 비판을 좋아하고 비난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늘 붙어져서 일종의
방패가 되어 왔는데, 방패는 칼을 쓰는 일에 도움을 줄 뿐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칼 쓰는 일에 참 능합니다. 모두가 무겁게 혐오하고 가볍게
사랑합니다. 혐오나 사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미물리는 대상의 범위도 참으로 좁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못자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도 재빨리 칼을 뽑아 들 수 있는, 우리는
놀라운 부사가 되어 있습니다.

종말 이전의 대한민국에서 레즈비언 인권운동을 한다는 것은 부사가
되지 않기에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편을 가르고 경계를 나누고 그 모두가 사랑이 아닌
혐오를 하기 위한인 사람들을 비판—혹은 비난—하기 위해서, 결국 나 자신부터가 편을
가르고 그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소수자이기 때문에 무자인 자신을 싫어하지
않고 옹호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양분을 주지 않는 사회에서 자신을 싫어한다는 건 방패조차
없고 양손으로 칼을 든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부사로 만드는
사회보다는 그 사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많이 미워하고만 있는 나 자신이 더 밍습니다.
이성애자가 비이성애자들—동성애자만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미워하는 게 싫은 것만큼,
똑같이 비이성애자가 이성애자를 미워하는 것도 싫습니다. 이름 되면 이제 모든 사람의
정말은 모든 사람을 함께 있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필자도 기대합니다. 2012년
종말론—종말이 아닌 종말 ‘론’—위에 드리워진
무지개의 그림자를, 그것의 도래를.

10년뿐 아니라 1년 동안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는 시대에
50년 뒤를 상상해본다는 건 정말 막연하기에 오히려 즐거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상상해보고 그게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마저 갖게 합니다. 꿈꾸는 자의
잠재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꿈꾸는 자에게까지 행동력을 요구될 수 밖에 세상이지만,
꿈꾸는 자는 무조건 사랑하고 보는 필자는 행동 없는 꿈의 힘도 믿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지금껏 그랬듯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멋대로 꿈꿔봅니다. 2050년의 새로운 세상을.

다양성이 삶의 양분이 되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자연을 보라. 그 어떤 꽃도 자기 열매 선 꽃이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걸 짓밟으려 하지 않는다.” 터무니없이 낭만적인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분명 코웃음을 칠 이야기이지만 명백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실조차
비웃어버리곤 합니다. 칼 닐슨의 일에만 골몰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세 세계의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모든 대상에게 똑같이 웃어주고 고개 끄덕여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존재함’, 그리고
‘존재함을 받아들임’을, ‘다양하게’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름’과 ‘다름에 대한 거부’가 꼭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건
아닐까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지만 차라리 다름이 아예 없는 세상이
제발 좋은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공장에서 찍혀 나오는 인형처럼 모두 똑같다면
서로의 다름을 미워할 일은 없을 텐데 하는 이 생각은 물론, 미움을 미워해서 미움의
근원을 없애버리려는 필자의 미련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희망은 그저
, 다름과 다름에게 그 어떤 점정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름이라는
단어에서 실패와 사랑을 읽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역시나, 사람이 사람이기에 다
다를 수 있다름과 다름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절 하나, 컵물 모양만으로
구별되는 다름이어도 그 다름 덕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때로는 나르시시스트가 되어 ‘나와 다름’을 눈 위에 덮어 싸우는
무사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름은 우리 삶에, 세상에, 아름다운 활력과
생명력을 줍니다. 그 위에 미움이라는 짙은 색을 덧칠하지 않는 2050년의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근시일 내에

일어나 버려서, 2050년에야 그게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를, 감히 모든 사람을 무사라 단정 짓고 모두가 모두를 미워하고
이태올토기에 휘둘리는 나악한 존재인 것처럼 표현해버린 것이 사실은 엄청난
오류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미움을 미워하는 것조차 미워시 자주 미움이
질어지는 이런 과정들의 끝에 느닷없이 사랑이라는 잔치러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기를, 명백하게, 필자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리고 대책 없이 긍정적인 상상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날 문화제의 한 부분을 선물 받은 기회를 빌려 편편스럽게
소망해 봅니다, 모두가 나같이 바보 같은 긍정심을
며안고 사는 사람이기를.

이 글의 제목은 2012년을 넘어 2062년의 종말론까지 예견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무지한 무사의 눈에 종말 ‘문’은 **희망**이라는 단어의
그림자입니다. 동전의 앞뒷면보다는 칼과 칼자루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칼주어 잡을 수 있는 포용적인 칼자루입니다. 이태올토기가 너무 길어져 희망의
검조차 보이지 않는 면(面)이 있다면 유일한 방법은 그것의 부분이라도 벗어내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 희망, 사랑과 같은 유치하고 존스러운 단어에서
실패기 시작하는 종말 ‘문’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2062년도, 2012
년도 아닌 지금 현재, 내 글을 읽은 누군가가 마음 안에서 폭풍과 같이 일어나기를
—내가 미련한 무사가 되어 있는 모든 순간들간에도 잊지 않고, 열심히, 내 다름
같은 에너지로 **희망**을, 희망하겠습니다.



후.기

활동가가 된 것도 인생에 흔적 하나 없어요.
그동안 나름의 좌절과 좌절을 경험했지요..
그러는 사이 연날은 저 일부가 되어있었습니다.
모두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런던

하루 일하는 문화제, 하하
저를 제외한 이쁘고 코믹한 분들
마지막으로 :O~? 막무...
연날 화이팅 양양
독후!!!!!!

하레

보가한 하다가 처음으로
장미한 문화제 이번 문화제 덕분에
현제와 조금 친해질 수 있겠지.
감사의 말씀...??

문제는 이제 와서 활동같은 문헌.
하레한 처음으로 나의 문화제에 대해 많이 많이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네요.
산림의 자제로 열심히 하고있었던
계절을 되돌아볼 수 있어.. 만년연..
(아름다운 항상 본받고있었어..)

그리고 양양은 나중에 끝까지도 아쉽습니다^^

아마

나나

두번째의 마지막이 될
문화제를 있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T~T
에서 함께 해주어 감사드립니다..
연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일을 도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저가 반대편에 있는 L. 힘을 내.
음, 한 97.8% 까지 ?

L.

박하

아무

와, 벌써 3번째로 문헌하는 문화제.
그동안 여러차례 제언으로든 연날제한 많은 사안이 있었지만
자금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주고 있어 조금더 힘내겠다. 우선
인간문화를 하기위해 모든 사람들이지만 그 속에서 먼저 아끼고 같은
나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풀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또한 함께
가질 수 있겠지. 내에는 연날이 더욱 소중하고 가까이 다가온다.
앞으로도 연날이 소중한 문화기 속에서 두 많은 L.들과 함께
인간문화를 해낼 수 있길 바라며 다음해 문화제는 참여하지 못 할수도
있겠지만 연날을 항상 응원할테마..!
수고했어 다음 :)

람다

내 삶의 다들포인트가 되기를 연날에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해서 무마죽음이 있었지만
난 끝까지 연날을 믿어요

고아워요, 고아워요, 고아워요!

레나

들어온지 세 학년도 간드쳐 정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끝까지 문화제에만 고집
했었습니다. 이번 것 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잘 한 것 같기도, 그런거 필요? 하하
배우자로 많이 도와준 친구들 고아워요!
제가 될 수 있을지 걱정한 것 모르겠지만
당신들과 함께하면 가능할것임!

포밍



이화인 여러분께 큰절 올립니다

2009년 제 7회 레즈비언 문화제 <소통>을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총학생회였던 이화위캔으로부터 예산 지급을 거부당한 후 저희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화인들의 씬짓돈 꼭지함 후원부터 거금을 선뜻 보내주신 익명의 분들까지, 많은 분들의 정성으로 작년 문화제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더욱 성실하게 활동하는 변날이 되겠습니다 :)

2009년 제7회 레즈비언 문화제 결산

수입 항목

- | | | |
|---------------------------------------|-------|---------|
| 1. 활동가 각출회비 | ----- | 634,000 |
| 2. 이화인 후원 (통장입금 564,500 + 꼭지함 30,400) | ----- | 594,900 |

수입 합계 1,228,900원

지출 항목

- | | | |
|-------------------|-------|---------|
| 1. 인쇄물 (포스터, 자료집) | ----- | 923,900 |
| 2. 전시물 제작 및 운구료 | ----- | 234,550 |
| 3. 영화제 DVD | ----- | 11,000 |
| 4. 홈페이지 운영 | ----- | 27,400 |

지출 합계 1,196,850원